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홀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 부항, 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269호

Monday, April 7, 2025 A

“소비자 물가 영향 크지 않다”

상호관세 50여개국 협상요구, 후퇴 않고 계속밀어 붙인다

백악관이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케빈 해시(사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비판이 부당하며 이같은 비판에는 논리적 단절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악화하면 미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화를 내고 보복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부담을 외국이 떠안기 때문에 미국에 보복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해시 위원장은 또한 “소비자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긴 하지만 미국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싸구려 상품이 미국경제에 보탬이 됐다면, 미국의 실질 임금과 실질 복지를 향상할 수 있었다면, 관세가 없었던 과거 시절에 미국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을 것이지만 실질 소득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으로 인해 외국의 값싼 상품이 밀려들어와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긴 했으나 미국인의 임금은 물가 하락 속도보다 더빠른 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해시 위원장은 “우리는 그로서리 마트에서 값싼 물건을 살 수 있었으나 그 결과 우리의 일자리가 급감했다”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다른 정책을 요구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해시 위원장은 상호관세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50여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상호관세 인하 및 철폐를 주장하는 세계 각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하워드 러트니 연방상무부 장관도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옥재 기자

“중국인과 사귀지 마라”

대사관 직원 연애 금지령

정부가 중국 주재 정부 기관 직원과 가족이 중국 시민들과 ‘낭만적 또는 성적인 관계’(any romantic or sexual relationships)를 맺는 것을 금지했다고 AP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 정책은 니콜라스 번스 전 중국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1월 퇴임하기 직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주 베이징 대사관을 비롯해 광저우, 상하이, 선양 우한의 영사관과 홍콩·마카오 영사관 등에 소속된 정규 직원뿐만 아니라 보안 인가를 받은 계약직 직원도 포함된다.

중국 시민과 기존 관계가 있는 이들은 이 정책 대상에서 면제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지만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국 시민과의 관계를 끝내거나 직위를 떠나야 한다.

이 정책을 위반하는 직원은 즉시 중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고 AP는 전했다.

일부 미 정부기관이 이와 유사한 제한을 둔 적은 있으나, 이렇게 전면적인 사교 금지 정책을 도입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라는 평가다. 또 기존에도 중국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고하게 돼 있긴 했으나, 이같이 적극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었다.

블룸버그는 미중 무역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 정책은 공식 발표 없이 구두 및 통신으로 전달됐으며, 이를 위반한 직원은 중국에서 즉시 철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전에 중국인과 관계를 맺어온 직원의 경우 따로 예외 신청을 해야 하나, 신청은 거절될 수도 있다.

배재성 기자

재외국민 투표권 11년째 위헌 방치

한국 국회가 11년째 위헌 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손질에 착수했다.

국회 내부에서는 개헌의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헌의 성패는 개정안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 뒤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결정된다. 하지만 1987년 9차 개헌 이후로 쓰일 일이 없었던 국민투표법에는 그새 구멍이 송송 뚫렸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거주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14



조 1항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지만 국회는 이를 11년째 개정 없이 방치했다.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 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해 6월과 11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해 모두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과 일치시키는 내용이다.

김정재 기자

미국 여권과워 45위, 한국은 39위

노마드캐피탈리스트 ‘2025 여권 지수’ 발표

미국이 글로벌 컨설팅업체 노마드캐피탈리스트가 발표한 ‘2025 여권 지수’에서 공동 45위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44위에서 한 계단 하락한 것이다.

미국은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171개국, 이중국적 가능 국가 50개국으로 총

점 98.5점을 기록했다.

노마드캐피탈리스트가 공개한 2025 여권 지수에서 아일랜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여권 보유국으로 선정됐다.

해당 지수는 세계 각국 시민권의 가치와 그 나라 국민이 여행국에서 받는 대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여권의 가치를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국가 수(50%), 세금 정책(20%), 국제적 인식(10%), 이중 국적 취득 가능성

(10%), 개인의 자유(10%)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국가 세무 당국, 세계 행복 보고서, 유엔 인간개발지수 등 20개 출처를 활용해 199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점수는 10점에서 50점 사이로 매겨졌는데, 비자 항목만 예외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 수로 표시됐다.

김윤미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해입
순금 야기 불변지팡이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형사법 전문 변호사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맥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맥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맥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SUPER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맥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www.davidmarkslaw.com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워싱턴DC 4만명 시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 규모

워싱턴DC 등 전국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워싱턴DC 내셔널 몰에서는 지난 5일 시민단체, 노동조합, 퇴역군인 단체 등 150여개 이상의 민간단체들이 모여 반트럼프 시위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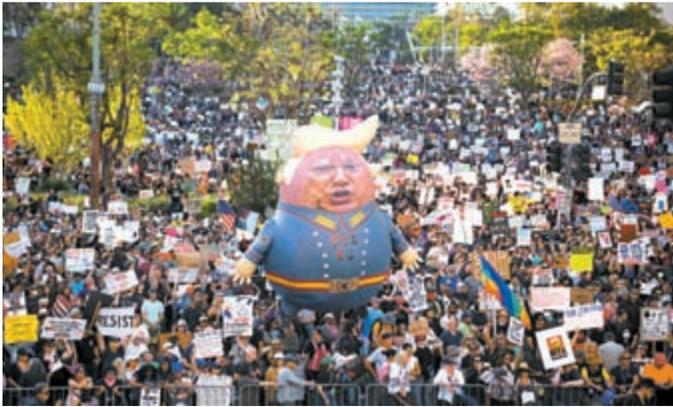
워싱턴 마뉴먼트 근처에는 약 4만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워싱턴DC 외에도 뉴욕, LA, 휴스턴 등 50개주 1400여곳에서 약 60만 명이 상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라" 혹은 "억만장자의 권력장악 시도를 멈춰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 참가자들은 불법이민 단속, 상호관계, 교육 개입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시위가 5일 미국 전역에서 열렸다. 이들은 연방 공무원의 대량 해고와 관세정책 등에 거센 불만을 표했다. 사진은 캘리포니아주 LA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하는 거대한 풍선이 등장한 시위 현장. [연합뉴스]

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강경보수파인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의원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이 심각한 경제적 불황에 빠지면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크게 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김옥채 기자

의료비 감당 못하는 인구가 2900만 명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응답자 10% "병원비 버겁다" 흑인·히스패닉계 부담 호소

미국인의 건강할 삶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수계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갤럽은 전국 성인 대상 의료비 인식조사 결과 성인 10명 중 1명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갤럽은 2024년 기준 미국 인구 중 2900만 명이 병원 치료비나 약값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2021년 성인 중 약 8%만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24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11%로 늘었다.

특히 소수계가 겪는 고통은 상대적으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히스패닉계 성인은 18%(2021년 10%), 흑인은

14%(2021년 9%)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다.

2024년 기준 히스패닉 성인 중 34%(2021년 51%)만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흑인은 성인 중 41%(2021년 54%)가 의료비를 감당할 경제상황이라고 답했다. 전체 성인 중에는 51%(2021년 56%)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백인은 2021년과 같은 8%만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인 성인 중 58%는 2021년과 같은 비율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소득에 따라 의료비 부담은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4년 사이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 부담을 호소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연 소득 2만4000달러 이하인 가구 중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2021년 14%에서 2024년 25%로 11%포인트나 늘었다. 2만4000달러 이상 4만8000달러 이하인 가구의 의료

비 감당 불가 비율은 2021년 13%에서 2024년 19%로 6%포인트 증가했다.

연 소득 4만8000달러 이상인 가구 중 의료비 감당 불가 비율은 11~12%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달리 연 소득 9만 달러 이상인 가구 중 의료비 감당 불가 비율은 1~5%에 그쳤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갤럽은 가구당 소득에 따라 의료서비스 격차도 더 벌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성인 응답자 중 35%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가구당 소득 2만4000달러 이하인 성인은 64%, 2만4000 달러 이상 4만8000달러 이하인 성인은 57%가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조사 응답자 중 12%는 지난해 의료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답했다.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요인은 식료품비, 교통비,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이 꼽혔다. 김형재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알렉스 오베치킨 NHL 통산 895골, 역대 최다 득점

워싱턴 캐피탈스의 알렉스 오베치킨(39세)이 6일 NHL 뉴욕 아일랜더스와의 경기에서 통산 895번째 골로, 역대 최다골 기록을 갱신했다.

러시아 출신 슈퍼스타 오베치킨은 NHL의 전설로 통산 득점 1위인 웨인 그레츠키(894골)를 넘어섰다.

농구의 마이클 조던, 골프의 타이거 우즈처럼 아이스하키를 대표하는 인물로 여겨졌던 그레츠키가 남

긴 성적표(894골·1963어시스트·공격 포인트 2857개)는 불멸의 기록으로 여겨졌으나 오베치킨은 전설 그레츠키를 넘어 NHL 최다 득점 1위에 등극한 것이다.

오베치킨은 2004년 NHL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데뷔해 정규리그 득점왕 9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하트 메모리얼 트로피'를 3회 수상했다.

관세부과에도 현대·토요타·혼다가 가격 인상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수입과 부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확정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혼란에 빠졌으나 토요타, 혼다, 현대차는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을 당분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대차는 6월 2일까지 미국 내 모델 가격을 유지할 계획이다. 반면 기아는 아직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토요타는 당분간 기존 운영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전해 가격 동결의사를 보였다. 토요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부품의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포드는 가격 인상 대신 직원 할인 혜택을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From America For America' 프로그램 모션을 시작했다.

IRS 평균 텍스 리턴 금액 3170달러

연방국세청(IRS)이 4월 4일 현재 1억 명이 텍스 리턴을 받았으며 평균 환급액은 3170달러로 작년에 비해 3.7% 더 많았다. IRS는 2021년 텍스

리턴 미환급 총액이 10억 달러 이상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 미환급액은 15일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에어차이나 델레스 공항 직항편 취항

에어차이나가 워싱턴 델레스 공항과 베이징 공항을 연결하는 직항편을 취항했다. 베이징 행 직항편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운행한다.

펜데믹 이후 중국 항공편이 거의 취소됐으나, 이번 운항 재개로 워싱턴 지역에 또다시 중국인 관광객이 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VA 얼-시어즈 부지사, 공화 주지사 후보 사실상 확정

원석 얼-시어즈 버지니아 부지사가 오는 11월 주지사 선거의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아만다 체이스 전 버지니아 상원 의원이 예비경선 자격 미달로 인해 경선없이 본선에 오르게 됐다.

버지니아 선거위원회는 체이스 전 의원이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명 1만 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얼-시어즈 부지사는 11월 4일 민주당의 예비계일 스펀베르거 전 연방하원의원과 승부를 겨루게 됐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 날씨 (°F)

8일(화)	48-30	11일(금)	61-47
9일(수)	53-35	12일(토)	59-46
10일(목)	60-46	13일(일)	63-48

4월 7일(월) 46-37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1-495 가까운 1층 콘도 킹스팍 \$1,600 방1, 화1	RENT 4층 타운하우스 현면 \$4,100 방4, 화4 1/2, 차고2	RENT 4층 타운하우스 현면 \$3,900 방4, 화4 1/2, 차고2
---	--	--



현스 홈케어 서비스

HYUNS HOMECARE SERVICES

Always With You!

현스 홈케어는

- 언제나 고객님의 곁에 함께 있습니다.
- 간병사님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을 모십니다.

- ▶ 개인간병 서비스
- ▶ 의료기구, 건강보조(Nutrition) 주문 지원
- ▶ 병원예약, 약국업무 도움
- ▶ Medicaid 등 갱신업무 도움
- ▶ 룸케어, 푸드스팀프 등 Consulting

언제든 연락주세요.
703-507-2492 Mr. 배/571-334-3963 Mr. 윤



진심을 다하여 필요한 분을 돌보아 주실 간병사님을 모십니다.

- ▶ PCA Academy
- ▶ 25년 3월~6월까지 Certificate 발급(무료)
- ▶ 매월 2회(2/4주 월요일 시작) 간병사 교육(5일 40시간)
- ▶ 지속적인 보수교육 실시

언제든 연락주세요.
703-507-2492 Mr. 배/571-334-3963 Mr. 윤



703.507.2492 / 571.334.3963

2834 Hill Rd., Vienna, VA 22182

Hyunshomecare@gmail.com
admin@hyunshcs.com

www.hyunshcs.com



워싱턴지역 정부용역업체 긴축 모드

연방정부 인력 감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지역 정부용역업체들도 시련기를 맞고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타이슨스에 위치한 용역업체 마이어 코퍼레이션은 442명 해고를 단행했다.

레스톤에 본사를 둔 레이도스도 29명을 1차적으로 해고했다.

마이어 코퍼레이션의 해고 인력은 전체 9400명 중 4.9%에 해당한다.

이 용역업체는 1958년 창업 이후 구소련의 미사일에 대응한 공중방어시스템 용역을 해왔다.

마이어 코퍼레이션은 “국방부와

용역 계약 취소로 인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레이도스는 연방항공우주국(NASA), 연방에너지부, 연방도심주택개발부 등과의 용역계약 철회로 인해 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방사회보장국(SSA)와는 10억달러 규모의 계약이 파기됐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FCEDA)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의 연방정부 공무원은 7만9천명, 정부용역업체 직원은 6만명 이상이다.

FCEDA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

임 이후부터 2월27일까지 모두 4천개 이상의 정부용역이 취소됐으며, 이중 북버지니아 지역 기업은 106개가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 기간 취소된 정부용역 규모는 모두 2천억달러에 이른다.

버지니아 리치몬드 소재 연준은행은 최근 지역경제 분석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정책이 이어지면서 대량 해고와 부동산 계약 취소, 정부용역 계획 변경 및 최소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옥재 기자

박희춘 회장배 축구대회

OB 청룡, YB 화랑 우승

차지했다.

워싱턴 지역 축구협회(회장 박희춘, 이사장 신익훈)의 올해 첫 시즌대회인 박희춘 회장배 축구대회(대회장 장기원)에서 청룡(OB부)과 화랑(YB부)이 각각 우승했다.

6일(일) 오전 8시부터 스트라펠로 우 공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YB부의 화랑과 조은이 예선에서 각각 2승으로 결승에 진출해 승부차기 끝에 화랑이 우승컵을 안았다.

OB부에서는 청룡이 2승으로 우승, 볼티모어가 1승1무로 준우승을

이벤트 대회는 협회 산하의 조은 축구회(회장 지선용), MD 청룡(회장 김경환), 화랑(회장 인교)과 페닌술라, 볼티모어, 베트남 팀이 대회에 참가했다.

YB는 화랑, 청룡, 조은, 페닌술라, OB는 화랑, 청룡, 조은, 볼티모어, 베트남 팀이 나섰다.

협회는 이번 대회 외에도 5월11일 화랑배 축구대회, 8월10일 광복절 축구대회, 9월7일 축구협회장배 축구대회, 10월12일 청룡배 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옥재 기자



YB부에서 각각 예선 전적 2승을 기록한 화랑과 조은이 결승에서 격돌해 승부차기 끝에 화랑이 우승을 차지했다.

염전노예 때문에...한국 최대 염전 소금 수입금지

연방정부가 한국내 최대 염전업체가 생산한 소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염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이동의 자유 제한 등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A염전의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이뤄졌다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 ‘수입 보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해당 미국 전역의 항구에서 수입이 중단됐다.

미국 측은 A염전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신분증 압수·협박 및 사기·폭행·임금 체불 등 강제노동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제품이 강제노동을 사유로 다른 나라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A염전은 국내 최대 규모로 부지 대부분을 천일염 생산업체들에게 위탁하고 있다. 이중 일부에서 지적 장애인 등을 대상으

로 ‘염전 노예’ 논란을 일으켜 문제가 됐다. 이후 염전 임차인들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징역형 등 처벌을 받았지만 A염전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착취를 당한 노동자들은 일할 곳이 없어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A염전 측은 ‘문제가 된 임차인을 내보내고 노동자 숙소 건립 등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조치가 알려지자 6일부터 자사 홈페이지도 폐쇄한 상태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지역 기독교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4월 30일까지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더불어 영문 혹은 한글 추천서 2통(담임목사 외 1인), 성적증명서(최종학교 혹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신앙간증서(영문), W-2 양식 등이다.

장학금은 1인당 2000-3000달러다. 기독교장학재단은 지난 1981년 설립돼 현재 장학금을 지급해 지금까지 47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올해 장학금 수여식은 6월7일(토) 오후 5시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571)594-7122, www.sfwcw.org

신청·접수 inchonlee@hotmail.com

김윤미 기자

초중고에 지원금 조건 DEI 폐지 요구

트럼프 행정부가 초중고(K-12) 공립학교에 연방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 프로그램(DEI)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방 교육부는 3일 각 주 및 교육청에 민권법 준수를 증명하는 인증서에 서명하고 1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공화당 행정부가 연방 기금을 무기로 DEI 정책을 제어하려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시

도로 해석된다.

크레이그 트레이너 교육부 민권국장 대행은 성명을 통해 “연방 재정 지원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DEI 정책을 통해 한 인종을 희생시켜 다른 인종을 우대하는 것은 민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인증서에는 단순한 서명 요청을 넘어서, 행정부가 작성한 수 페이지 분량의 법률 해석 자료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교육부는 “특정 DEI 관행은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연방 자금 수혜를 원하는 교육기관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인종이나 출신 배경에 따라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저소득층 지원 목적 ‘타이틀 I(Title I)’ 기금도 포함하고 있어, 소외계층 학생이 많은 지역 학교들의 재정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주 교육청에 인증서 서명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 교육청에도 인증서 수집을 요구했다.

최인성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올나차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두노

DUO NY 212-915-7115

워싱턴지역 기독교 장학재단 www.sfwcw.org
Korean American Christian Scholarship Foundation of Greater Washington

신학교 신입/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44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해 온 워싱턴지역 기독교 장학재단에서 올해도 2세 신앙교육에 사명이 투철한 신학교 신입 /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장학금: \$2,000~\$3,000 (수혜자 1인당)
▶ 신청자격: 1. 영주권 혹은 시민권 소유자
2. 입교인(세례 또는 침례 받은 자)으로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
3. 대학을 수료한 지로서 주정부에서 인정된 신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 중인 자
4. 2세 신앙교육과 사역에 헌신할 자

▶ 신청서류: 1. 신청서 (사진 첨부) : 신청서 양식은 www.sfwcw.org 에서 다운로드 함.
2. 추천서 2통 (담임목사 외 1인), 영문 혹은 한글 추천서
3.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혹은 현재 재학중인 학교)
4. 신앙간증서 (영문으로 작성 바랍니다)
5. Form W-2 (if applicable)

▶ 신청 및 접수마감: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까지
▶ 문의: 이인천 (이사장) 571-594-7122
▶ 협찬: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 고 서준덕 원로목사 장학기금 (\$6,000)

장학금 수여식 및 예배
- 일시: 2025년 6월 7일(토) 오후 5시
- 장소: 버지니아 제일 침례교회 8616 Pohick Rd, Springfield, VA 22153

워싱턴 지역 기독교 장학재단은 1981년에 설립되었으며 2세 신앙교육에 사명이 투철한 신학생들에게 44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47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육, 우리들의 미래인 2세들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사장
* 1대 홍성남 장로 * 2대 강은숙 장로 * 3대 임인자 집사
* 4대 이연구 권사 * 5대 박명옥 집사 * 6대 장은수 장로
* 7대 송상례 장로 * 8대 최정선 권사 * 9대 진 이권사
* 10대 박상근 장로

www.sfwcw.org(Korean) / www.kapastorscholarship.org(English)

▶ 접수: 이인천 장로 (이사장) inchonlee@hotmail.com → 모든 신청은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상호관세 부과에 부동산 시장도 흔들

건설비 상승에 집값도 ↑ 신축 한채당 최대 1만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노동자들에게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하며 발표한 대규모 상호 관세 조치가 건설 비용 증가,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관세 정책은 주택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수입 자재가 워낙 많아서 인상된 관세가 부과되면 주택 건설 비용이 대폭 오르고 이에 따라 집값은 물론 주택 보험료 등의 부대 비용도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주하인건설협회의 크리스 이 회장은 “중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건축자재가 수입되고 있다”며 “대중국 관세 폭탄으로 건축 자재 비용이 오



전문가들은 관세가 건축 자재값을 올려 신축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장기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모기지 이자율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버인의 단독주택 공사 현장.

면 결국 건축 비용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에 따르면, 국내 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약 10%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

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총 관세는 54%에 이르게 된다.

현재 캐나다산 목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명목으로 부과한 25% 관세의 면제 대상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새로 도입된 10% ‘상호주의 관

세’가 추후 적용될지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전했다.

관세 적용 시 발생하는 원자재 가격 인상은 신축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재비 인상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신축 주택에 대한 구매 심리 위축은 물론, 전체 주택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NAHB는 이미 일부 회원사들이 신축 단독주택 한 채당 자재비가 7500달러에서 1만 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더 많이 짓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관세 조치는 되려 주택 건설 비용을 높여 주택 공급을 방해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주택 가격뿐 아니라 모기지 금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지고 있다.

기업은 관세로 인한 원가 상승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게 되고, 이는 다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늦추거나 보류하게 만들 수 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될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기지 금리 역시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경우, 모기지 금리가 오랜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2024년 10월 말 이후 줄곧 6.6%를 웃돌고 있다. 이는 시장의 기대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속됐기 때문인데, 이번 관세 정책이 그 불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윤식 기자

한인 식당 업주들 우버이츠 속앓이

수개월간 음식 대금 못받아 허술한 '계좌 보안' 이 문제

시애틀의 한인 식당 업주가 음식 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츠(Uber Eats)’로부터 수만 달러의 음식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소개되자 LA 지역 한인 업주들의 피해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샌타모니카에서 ‘카이 라멘(Kai Ramen)’을 운영하는 한인 박현우 대표는 지난해 7월 첫째 주를 마지막으로 우버이츠로부터 입금을 못 받고 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까지 약 8개월간 총 3037건의 배달 주문을 처리했고, 매출액은 12만4599달러나 된다.

박 대표는 입금 중단 사실을 지난해 12월에야 확인했다. 계좌 정보를 살펴



LA한인타운 한 식당 계산대 옆에 설치된 배달용 음식 픽업 안내문. 김상진 기자

보던 중, 우버이츠 시스템 내 등록된 은행 계좌가 본인과 무관한 계좌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해당 계좌의 은행은 노스다코타 주에 위치한 이름조차 생소한 곳이었다.

박 대표는 올해 1월 2일 우버이츠 측에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지만,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후 우버이츠는 “지속적으로 연락하면 케이스가 중복 생성되어 처리에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기다리라는 내용의 이메일만 보내왔다. 최근에는 “조사가 끝났고, 지급 보류가 해제됐다”는 이메일을 받았지만, 실제 입금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미지급 금액이나 조사 결과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

박 대표는 “계좌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피해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표의 담당 회계사는 고객 가운데 박 대표와 비

슷한 피해를 경험한 고객이 3~4명이나 더 있으며, 모두 문제 해결에 수개월이나 걸렸다고 전했다.

한인타운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나왔다. ‘이가’와 ‘토미스시’ 두 식당을 운영하는 이우석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우버이츠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두 곳 모두를 하나의 우버이츠 계정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18일, 해당 계정에 등록된 은행 계좌가 ‘Gorge E Romero’라는 이름의 타인 명의 계좌로 무단 변경돼 있는 것을 12월 9일에서야 뒤늦게 확인했다. 이 대표는 우버이츠의 보안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즉시 문제를 제기했고, 우버이츠는 “지급을 일시 중단하고, 계좌 정보를 다시 등록하면 이후 입금을 재개하겠다”고 안내했을 뿐 한달이 지난 후에

도 변한 것 없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처리한 826건, 3만3400달러가 미지급된 상태다.

지난 1월 13일부터 약 한 달간 배달을 중단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버이츠를 포기하기 어려웠다. 그는 2월 28일 우버이츠와 다시 연락이 닿은 뒤 계좌 정보를 재설정하고 주문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 앞서 잘못된 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한 우버이츠 측의 설명이나 대응은 전혀 없었고, 우버이츠는 당시 “첫 정산은 최대 14일 이내 입금될 예정”이라고만 안내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입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개 후에도 정산 지연이 계속 되고 있다. ‘이가’와 ‘토미스시’를 합쳐 보류된 금액은 총 약 1만4000달러다. 한인 업주들은 우버이츠의 부실한 고객 서비스도 지적했다.

정윤재·강한길 기자

LA의 역사적 베이커리 한인 손에 새롭게 탄생

한인 스타 셰프 윤상

지난 1932년 LA 올림픽 공식 빵을 공급하고 아폴로 11호 달 착륙 미션에도 함께한 ‘헬름스 베이커리(Helms Bakery)’가 한인 스타 셰프 윤상의 손에서 다시 태어난 지 4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11월 컬버시티에 소프트 오프닝을 시작한 이곳에 단 이틀 만에 약 3000명이 손님으로 찾아오면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헬름스 베이커리는 이제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같은 공간 내에서 새롭게 오픈할 ‘디넷(Dinette)’은 크루즈 선박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 아메리칸 다이닝을 선보일 예정이다. 베이커리에서 시작한 윤 셰프의 도전이 또 다른 형태로 확장되는 순간이다.

윤 셰프는 어릴 때부터 음식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다. 장난감보다 요리책과

비디오를 선물로 받고 싶어 했고, PBS에서 방영된 ‘The Great Chefs of New York’을 보며 셰프들의 기술을 따라했다. 부엌에서 직접 실험하며 조리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 그의 놀이였다.

부모님은 요리를 직업으로 삼겠다는 그의 선택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윤 셰프는 포기하지 않았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정통 프렌치 요리를 익히며 뉴욕, 도쿄, 모나코를 거쳤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지난 2000년, 그는 LA의 작은 바였던 ‘파더스 오피스(Father’s Office)’를 인수했다. 동네 술집 같은 공간을 개조해, 고급 레스토랑 수준의 음식을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 ‘가스트로펍(Gastropub)’ 개념을 LA에 처음으로 소개했다. 가스트로펍은 ‘가스트로노미(Gastronomy, 미식)’와 ‘펍(Pub, 선술집)’의 합성어로, 술과 함께 수준 높은 음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탄생한 ‘오피스 버거(Office Burger)’는 단숨에 화제가 됐다. 건식 숙성한 소고기 패티, 카라멜라이즈드 어니언, 그뤼에르 치즈, 블루 치즈,

루꼴라가 조화를 이루는 이 버거는 “계첩 금지, 맞춤 변경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논란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완벽한 맛을 위한 그의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

오는 2028년 LA 올림픽과의 협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그는 “지난 1932년 올림픽 공식 빵을 공급했던 헬름스 베이커리가 다시 한번 올림픽과 연결될 수 있을까?”라며 “헬름스 베이커리의 빵을 다시 한번 우주로 보내는 것도 상상해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많은 이들이 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글·사진·정윤재 기자

It's Okay, with Jesus!

“TV값 오르기 전 사야하는데...” 미국 서민부터 관세 부메랑

글로벌 관세폭탄, 미국은 지금

계란 판매량 제한하자 몸싸움까지 “트럼프, 서민들 죽일 것” 불만 고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10%의 보편관세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워싱턴DC 인근 코스트코를 찾은 소비자들은 경쟁하듯 화장지를 카트에 담았다. 산더미같이 쌓아둔 화장지가 순식간에 동나자 지게차는 연신 화장지를 실어날랐다.

30개들이 두루마리 휴지 3개와 키친 타월 4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마사 페레스는 “솔직히 당장 필요해서 산 게 아니다. 관세로 물건값이 올라갈 텐데 팬데믹 때 화장지 1롤당 10달러가 넘었던 게 기억나서 일찍 퇴근해 일단 화장지부터 샀다”고 했다.

계란 판매대엔 ‘판매량을 3개로 제한한다’는 문구가 붙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동반자 수대로 계란을 3개씩 나눠 들며 확보 경쟁을 벌였다. 이를 지켜보던 모니카고는 “오히려 오늘은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라며 “어제만 해도



지난 4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형마트는 화장지 등 생필품값이 오르기 전 미리 사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긴 줄을 서서 서로 계란을 달라고 몸싸움을 벌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도 바꿀 때가 됐는데 할인 행사도 끝나서 기회를 놓쳤다”며 “솔직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의 카트에도 어김없이 화장지가 담겨 있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지난 3일부터 미국인의 필수품인 자동차에 25%의 관세

가 붙기 시작했다. 5일부터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가, 9일부터는 한국을 비롯한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에 적용되는 초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세계의 공장 중국에 기존 관세 20%에 상호관세 34%를 더한 54%, 또 다른 공장 베트남엔 46%의 관세가 예고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총격과는 미국의 저소득층부터 강

타했다. 빈 카트를 끌고 오랫동안 TV 가격표를 바라보던 홀리 뉴먼은 “TV가 오래돼, 관세로 가격이 오르기 전에 바꿔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말했다. 기자에게 상당수 가전의 원산지가 고관세가 붙는 중국과 베트남이라는 말을 들은 그는 “트럼프가 나라를 죽이고, 나 같은 사람을 죽일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는 빈손으로 매장을 빠져나갔다.

관세가 저소득층에게 더 큰 고통이 되는 이유는 역(逆)누진성 때문이다. 관세는 모든 상품에 똑같이 반영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체감하는 가격 상승 효과가 크다는 뜻이다. 부자에게 10달러는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로 인한 양극화에 대한 불만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고 있었다. 월마트에서 만난 샘 윌슨은 “트럼프 정부에 화가 나는 것은 모든 부담과 책임을 미국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특히 모든 정책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을 줄이고 그들이 더 잘살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특히 역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공공 부문의 대규모 인원 감축을 주도하면서 ‘부자 정부’ 이미지를 강화하고 반발을 키운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 사리우는 “워싱턴 인근에는 정부 기관에 종사하거나 정부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며 “내 남편도 머스크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고됐고, 정부 쪽에 취직하려던 아들도 취직이 안 돼 내 파트타임 월급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관세 발표를 기점으로 미국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휘청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10년간 6조 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지만, 지난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불과 이틀간 뉴욕증시의 시가총액은 6조 6000억 달러 줄어들었다. 특히 미국 경제의 ‘체력’으로 불려온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7개 기술 기업의 시가총액만 1조 8000억 달러 날아갔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1200만 구독 만든 황금손

NYT 디지털 혁신 주역 한나 양 ‘90만이 최대’ 전문가 예측 뒤었고 14년 사이 유료 구독자 13배 늘려

뉴욕타임스(NYT)엔 ‘최고 성장 및 독자 관리자(Chief Growth & Customer Officer)’라는 자리가 있다. 유료 구독 성장을 책임지는 핵심 요직이다. 이 자리에서 NYT의 유료 구독 1200만(2025년 1분기 기준) 신화를 쓴 인물이 한국계 미국인 한나 양이다. 디지털 구독이 NYT 매출에 기여한 금액은 2025년 현재 14억 달러에 달한다고 악시오스(Axios) 등 외신은 집계했다.

한나 양의 다음 목표는 2년 안에 1500만 유료 구독 달성이다. NYT와 파

너너십을 맺고 있는 중앙일보·코리아 중앙데일리와의 회의 및 고려대 미디어학부 강연을 위해 방한한 그를 지난 2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NYT 유료 구독 성장 비결은. “비밀 알고리즘 같은 건 없다(웃음). 가장 중요한 건 뉴스룸에 투자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다. 저널리즘의 본령은 뉴스룸에서 나온다. NYT엔 현재 3000명이 넘는 기자가 일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 최대 규모다.”

-처음엔 쉽지 않았을텐데. “NYT가 디지털 여정을 시작한 게 2011년 3월이고, 내가 합류한 건 2010년이다. 디지털 구독의 처음부터 함께 한 셈이다. 그때, 한 존경받는 경제학자가

내게 ‘90만이 최대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NYT가 지면만 발행했을 당시 최대 부수가 130만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13배 가까이 늘렸다. 디지털 유료 구독을 시작했을 당시 모두가 우리에게 ‘바보같은(stupid) 짓’이라고 했다. 그래도 했다. 그 길엔 수많은 실패, 수많은 실수가 있었다. 그래도 저널리즘의 본령을 잊지 않으며 달려왔다.”

-티핑 포인트는. “독자의 경험 축적이 중요했다. 뉴스라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불확실성의 지배를 받는 자산이다. 우리는 뉴스룸을 태양으로 하는 태양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뉴스룸을 중심으로 NYT 쿡킹, 애슬레틱이라는 스포츠, 팟캐스트 등등 다양한 행성들을 만들었다. 이 행성들은 태양이 없으면 죽는다. 하지만 뉴스라는 태양에 딱히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도, ‘명절에 무슨



뉴욕타임스(NYT) 디지털 유료 구독의 성공을 뒤에서 묵묵히 이끈 한나 양. 그는 “뉴스를 보기 위해 구독료를 내는 건 투표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호 기자

요리를 해야 할까’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다가 우리 행성들에 들어온다. 그렇게 태양계에 들어왔다가 태양을 접하는 독자층도 많다.”

-언론계 성장에 핵심 기여 중이지만 기

자는 아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나오고 로펌과 투자은행 등에서 일하면서 언론계에 우연히 발을 들였는데, 너무 매력적이라 이 업계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정을 갖게 됐다. 쉽지 않았다. 인생은 우리가 예측 못한 다양한 지뢰를 곳곳에 숨겨 놓는다. 고되도 아침에 눈을 뜨는 건 NYT였기에 가능했다. 기업 변호사를 계속했다면 그만뒀을 수 있다. 열정을 이기는 건 없다.”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9살 때 미국으로 무작정 건너왔다.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정부 관료였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당시 영어도 전혀 못하셨지만 두려움을 마주하는 용기를 갖고 있었다. NYT가 서울로 아시아 헤드쿼터를 옮긴 건 개인적으로도 기쁜 일이 었다.”

전수진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풀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LS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리조음)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홀

미리조음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은 뉴타운홀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치킨게임 치닫는 미·중... 세계경제 'R의 공포' 경고등

(Recession, 경기침체)

국제유가 7% 급락, 팬데믹 후 최저 유럽·아시아 증시도 이틀연속 하락

글로벌 금융시장이 패닉(공황)에 빠졌다. 세계경제 양 축인 미국과 중국이 34% 고을 관세로 '무역전쟁 2라운드' 신호탄을 쏘면서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 대형주 지수인 유로스톡스50은 3일(-3.59%)에 이어 4일에도 4.6% 하락해 5000선이 무너졌다. 독일 DAX40(-4.6%), 영국 FTSE100(-4.95%) 등 유럽 주요국 증시 모두 5% 안팎으로 급락했다. 일본과 한국, 베트남 등 트럼프발 관세폭탄을 맞은 아시아 증시도 이틀 연속(3~4일) 내림세다. 반면에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빅스·VIX)는 지난 4일(현지시간) 45.31로 이달 초(21.77)보다 2배 뛰었다.

'치킨게임'이 본격화하면 세계경제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4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 선물 가격은 이날 배럴당 61.99달러로 하루 사이 7.4% 수직 낙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았다. 전

날 6.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하락 폭을 키웠다. 경기 선행지표로 꼽는 구리값(선물 종가 4.4달러)도 전날보다 8.8% 급락했다.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로 원자재 수요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건 침체 강도가 세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면서다. JP모건의 마이클 펠로리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무기에 의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기존 1.3%(전망치)에서 마이너스 0.3%로 낮아지고, 실업자는 200만 명 가까이 추가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계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스도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0.1%로 수정했고, UBS는 상호관세 여파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기술적 침체를 예고했다. 미국 경제가 역성장으로 꺾일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은 클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들은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2%포인트 하락하고, 대미 수출은 약 60%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베트남 통계청은 미국 관세로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

면 GDP 성장률이 0.84%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JP모건은 "올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기존 40%에서 60%로 상향한다"며 "보복 조치, 공급망 혼란, 그리고 심리적 충격으로 관세전쟁 영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1.8%)와 한국은행 전망치(1.5%)를 크게 밑돌 수 있다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중 갈등에 끼여 전방위 압박을 받을 수 있어서다. 미국 웰스파고는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약 0.5~1.0%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미·중 무역전쟁 1라운드가 시작된 2018년 한 해 동안 코스피는 17% 급락한 바 있다.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협상을 고려해 러시아에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케빈 헤셋 미국 국가경제위원장은 미 ABC뉴스에 출연해 50개국 이상이 백악관에 무역 협상을 위해 접촉해 왔다고 밝혔다.

염지현·서유진 기자



미국 전역서 반트럼프 시위 5일 뉴욕에선 "역만장자들은 우리 학교와 노조, 우리의 자유와 헌법에서 손 떼라"는 팻말을 든 시위자들이 거리를 행진했다. 샌프란시스코 오션 비치에서 도널드 트럼프 반대 시위자들이 "민주주의에서 손 떼라"는 글씨를 둘러싸고 인간 띠를 만들었다. 워싱턴DC 내셔널 몰에서는 '정부효율부(DOGE)'라는 글씨가 적힌 모자를 쓴 일론 머스크를 풍자하는 인형탈이 등장했고 "재생에너지에서 손 떼라"는 손팻말도 나왔다. [연합뉴스]

젤렌스키, 미국에 연일 '러 압박' 호소...마크롱도 "강력액션 필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부분 휴전'을 거부한 채 공격을 더 퍼붓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응을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상 연설에서 "오늘 러시아가 자행한 공격 중에는 흑해상에서 발생한 미사일도 있었다"며 "이것이 러시아가 무조건적인 휴전을 거부하는 이유다. 그들은 해상에서 우리 도시와 항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미국의 중재로 30일간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부분 휴전과 흑해에서의 휴전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러시아가 선결 조건을 걸면서 휴전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에 동의했으나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은 반응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 모든 나라들과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세계 각국이 대응해주시길 기대한다"며 대러시아 제재 등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에는 미국을 향한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4일 러시아의 동남부 도시 크리비리흐를 미사일 공격으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미국 대사관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실망스럽다"고 적었다. 당시 브리짓 브링크 주우크라이나 미국대사가 엑스에 '러시아 미사일'이라는 언급 없이 사망자 중에 어린이가 포함됐다고 "전쟁을 끝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크리비리흐에 대한 러시아군 공격으로 다수 어린이를 포함

해 최소 19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크리비리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이다.

우크라이나 전후 안전보장 구상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도 러시아를 강력 비판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크리비리흐 상황 등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공습은 끝나야 한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시간을 벌려고 하고 평화를 거부할 경우엔 강력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을 향한 메시지다.

유럽 내에서는 미국이 '데드라인'을

정해 러시아의 이행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알렉산드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골프 회동에서 부활절이후 트럼프 대통령 취임 3개월을 맞는 오는 20일을 시한으로 정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아직 없다.

다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일 "러시아가 평화에 진지한지는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안에 곧 알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입장을 재평가(reevaluate)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오만 통해 핵협상하자...미국 동의하면 곧 시작"

이란은 미국이 요구하는 핵협상을 중동의 이웃국가 오만을 통해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의 한 관리의 로이터에 "간접 대화를 통해 이란과의 정치적 해결책에 대한 미국의 진지함을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리의 미국이 이에 동의할 경우 곧바로 핵협상과 관련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이란 정부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튀르키예, 바레인 등 주변국에 "미군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거나 영공·영토를 미군에 허용하면 적대행위로 간주하

겠다"는 취지로 경고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란을 향해 "만약 그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폭격이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이전에 결코 본 적

이 없는 수준의 폭격이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사진)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핵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2개월의 시한을 제시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핵협상을 이끌어내고 자 이란에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최대 압박' 정책을 쓰고 있다.

이란은 2015년 미국, 유럽 등 서방과 타결지은 이란핵합의를 3년 만인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한 전력에 비춰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요구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전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협상을 원한다면 위협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이란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관리의 미국이 이에 동의할 경우 곧바로 핵협상과 관련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kone's Lab at UNK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 / 쉐넬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4월 프로모션

기간 3.28.2025-4.28.2025 조건 기간내 주문 & 4월 내 설치

일시불제품사용고객 업그레이드혜택!

+ 1건 추가 렌탈 시



+ 3건 추가 렌탈 시



+ 2건 추가 렌탈 시



베스트 셀러 정수기 렌탈 계약 시
6개월 렌탈료 OFF +
후라이팬 증정



* FN601H/SA, KN501HI/SW 제품에 한함
* 5/ 6년 렌탈 계약에 한함
* 조기 소진 시 사은품 대체

안마의자 구매 시
일시불 최대 \$3,500할인/
월 렌탈료 \$20 OFF



* 30의 경우 할인율과 사은품 다름

BRAND STORE

• **VA 직영점**
13826 Braddock Rd #C, Centreville, VA 20121 Tel. 571-321-7776

•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2T/G, CP-QN1401SW, CP-KN501HW, CP-FN601HA, CP-FR601HW, CP-FR601SW, CP-ACR1620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일 반 제 품 CP-ADR501UW, CP-MN031W/BK, CAC-C1020FW, CAC-AA0910FW, CWS-AO201W, CBT-IS1131REW/RRW, CBT-I1030R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키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패키지 상품은 사은품 적용 제외

CUCKOO

CUCKOORENTAL.COM
888.700.0425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대선·개헌 동시투표 우원식 쏘아올렸다

개헌특위·국민투표법 개정 제안
부족한 내용은 내년 2차 개헌 추진
“새 대통령 임기 전에 물꼬 터야
양당 지도부와 개헌 논의 공감대”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는 방식의 헌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우 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통령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 불락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개헌과 조기 대선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2단계 개헌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개헌을 위한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개헌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로 발의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뒤 국민투표(유권자 과반 투표, 과반 찬성)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재외국민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주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고 명시한 국민투표법 조항이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우 의장은 “이것이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라고 했다.

헌법과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국회가 제안한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이후 국회 의결을 거친 뒤 국민투표일·투표안은 최소 18일 공고해야 한다. 결국 조기 대선 38일 전까지 개헌특위가 합의된 개헌안을 내놓아야 대선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60일 이내에 대선 치러지는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우 의장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바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질문에 우 의장은 “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이미 이 대표와 수차례 소통하며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우 의장 제안에 “개헌에 동참하고 개헌 특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윤성민 기자

이재명, 우원식과 이달 두 차례 회동

정대철 “이도 개헌문 열자는 입장
책임총리제·연성헌법 등 추진 의사”
민주당 사무총장 “논의할 준비돼”
일각선 “아직 때아니다” 반발 기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 정당이 국민투표법 개정 및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4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개헌 문제를 언제든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당 차원의 개헌 논의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간 “내란 수습이 먼저”라며 개헌 논의에 선을 그어 온 민주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개헌에 전향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개헌에 긍정적이라고 한다. 지난 3일 정대철 현정회장과 전화 통화에서 개헌 동참 의사를 직접 밝힌 때 문이다. 정 회장은 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책임총리제와 연성 헌법, 두 가지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며 “개헌의 문을 연 것은 훌륭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가 원하는 개헌과 관련해 “국회에서 뽑고 국회가 책임지는 총리를 통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개헌이 어려운 현재의 경성 헌법은 연성 헌법으로 고쳐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통화에서 구체적 논의는 오가지 않았지만 “나머지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하자는 것이냐”는 정 회장의 질문에 이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수용하는 4년 중임제”를 공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다.

약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이 대표가 개헌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윤덕 총장 역시 우 의장이 제안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제안에 대해 “권력구조 전면 개편보다 ‘감사원 국회 이관’ 등 대통령의 제약적 권한을 일부 내려놓는 내용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발표된 지난 1일 이후 우 의장과 두 차례 회동했다. 물밑 교섭이 이미 시작됐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향후 이 대표가 우 의장과 공식 논의를 이어가며 개헌의 속도와 범위를 조정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대표 주변에선 “우 의장과 이 대표의 개헌 의지가 완전히 같은지는 확실치 않다”(대표실 관계자)는 반응도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6일 친명계 의원들은 “TPO(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정청래) 등 우 의장을 겨냥한 발언이 쏟아졌다. 중

립지대에 속한 이인영 의원도 “지금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다.

반면에 비명계 대선주자들은 큰 틀의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우 의장의 개헌 추진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의 개헌부터 먼저 하자”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부겸 전 총리는 “적어도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공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개헌에 동참한다”면서도 “(민주당 안을)우리가 고무 스탬프처럼 찍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도 “우 의장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논의의 진도를 빼는 건 받아들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욱·심새롬·김규태 기자

개헌, 문제는 속도... 1987년 ‘8인 회담’ 이 교과서

우원식 개헌 제안, 전문가 조언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시대정신에 맞게 정당이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내놓은 헌법 개정·조기대선 동시투표 제안의 핵심 관건은 결국 ‘시간’이다. 현행 헌법상 개헌 절차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되는데,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여기에 또 국민투표법상 대국민 공고 기간 18일을 거쳐



38년 전인 1987년 8월 31일 권익현 민정당 대표(앞줄 왼쪽)와 이종재 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가 개헌 협상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앙포토]

야 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공고 기간을 일부 줄이더라도, 헌법개정안이 대선 30일 전까지 마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 의장 제안처럼 ‘국회 개헌특위’라는 논의의 장을 빨리 만드는 게 급선무다. 우 의장 측은 이번 주 안으로 18~20인으로 구성되는 국회 개헌특위를 발족해 압축적으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최대 60일에 불과한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 사이의 협소한 공간에서 왜 우 의장은 개헌 카드를 빼들었을까. 국회 고위 관계자는 “우 의장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지난해 제헌절부터 개헌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며 “12·3 계엄사태로 제약적 대통령

제의 폐단이 극명하게 드러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5선 국회의원 임기를 거치며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데 주력했던 우 의장은 취임 이후 과거 개헌 논의 실패 사례를 연구했다. 그 결과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개헌 논의 자체가 중단됐고, 임기 후반기엔 레임덕으로 인해 논의가 좌초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회 관계자는 “시일은 촉박해도 지금이 놓칠 수 없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우 의장이 양당 지도부와 물밑 논의를 거쳐 제안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지난 1월에 국회사무처 법제실로부터 1987년 개헌의 산파역을 한 ‘8인 정치회담’ 모델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이 10·27 개헌 국민투표로 이어지기까지 논의를 주도한 데 이력이 있었다. 당시 민정당에선 윤길중·이한동·권익현·최영철 의원, 통일민주당(민주당)에선 김영삼계 박용만·김동영 의원, 김대중계 이종재·이용희 의원이 참여했다. 1987년 7월 31일 처음 머리를 맞댄 이들은 공전 중인 개헌특위와 별도로 진행된 비공개회의를 통해 단 한 달 만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던 대통령 임기 문제는 정치 지도자의 결단으로 해소됐다. 오현석·장서윤·김정재 기자

백성호 CPA, MBA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백성호 공인회계사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 용자의 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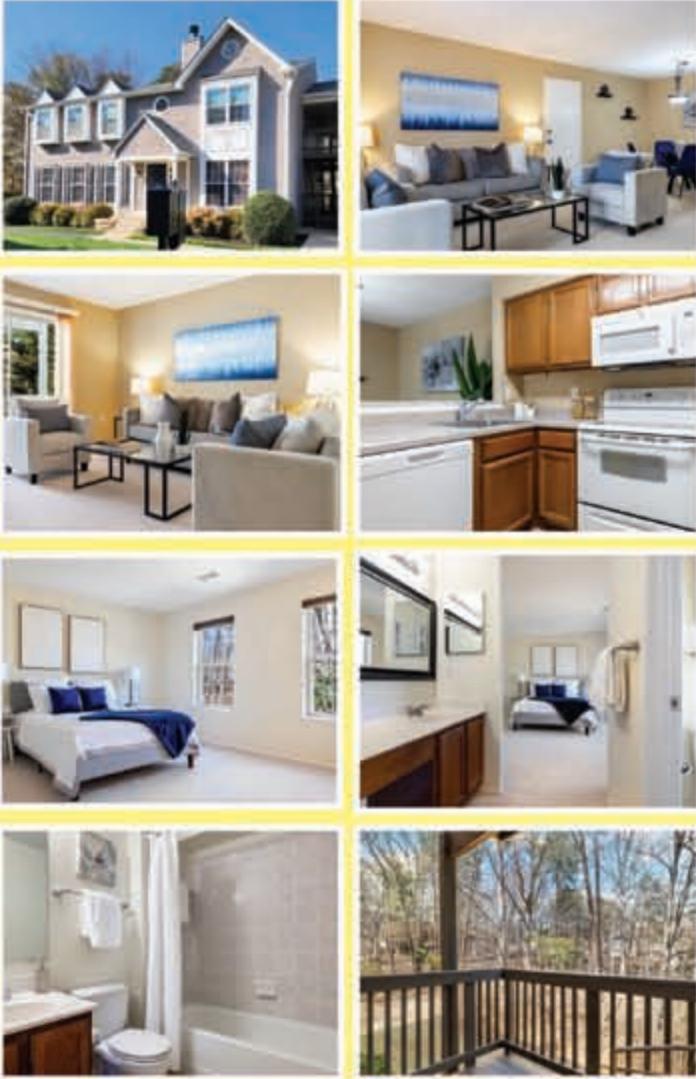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EMET, Inc
NMLS #201332

특점 Springfield 콘도

방 2, 화 2, 새 카펫, 새 페인트,
탁 트인 구조, 넓은 리빙 룸,
발코니 2

\$375,000



특점 Springfield 콘도

방 2, 화 1, 업데이트한 집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 1,
넓은 발코니, 밝고 환한 집

\$369,900



특점 Annandale 콘도

완전 리모델링된 환하고 밝은 예쁜 콘도,
나무마루, 새롭게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H Mart 가까움

\$210,000



특점 Stafford 단독주택

2011년에 지은 집, 2022년에 업그레이드, 방 5, 화 5,
차고 2, 뒷층에 Full Bath 3개, 최고급 자재로
업그레이드 한 집, 새 단지 새 동네, Walkout Basement

\$71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김문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가운데)이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 선전·선동에 동참했던 의원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선거일 공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김상훈 정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배경 벽면 문구는 ‘국민께 죄송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바뀌었다.

이재명, 9일 대표직 사퇴 유력

이, 한덕수 대선일 확정 다음날 사퇴 계획
김두관·김경수 출마... 김동연은 검토
‘국민경선 방식’ 경선을 유지할지 주목

조기 대선을 약 60일 앞둔 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돌입했다. 김문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제된 자세로 다가올 대선을 준비하겠다”며 “경선물을 정하거나 준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위한 대표직 사퇴 시점은 9일이 유력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확정하면 다음 날 사퇴한다는 시나리오다. 당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늦어도 이번 주 내엔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사퇴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시한인 다음 달 초까지는 본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경쟁자들도 움직임을 보였다. 김두관 전 의원은 출마 선언 일정을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로 못 박았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측도 6일 통화에서 “완주 생각은 굳혔다”며 “대통령 선거일이 정해지고, 경선의 윤곽이 나오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측은 “8일 이후 입장을 정하겠다”면서도 “출마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확인했다. 그는 통화에서 “당원과 국민에게 대의를 위해 복무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선 길목에서 관심의 초점은 룰 협상이다. 김 사무총장은 “국민경선 방식이나 국민참여경선 방식이 우리 당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경선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간 ‘권리당원 투표 50%+여론조사 50%’로 총선 후보를 선출해 왔고, 대선 주자는 대의원·권리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과 별도 신청한 일반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국민경선’ 방식으로 뽑아왔다. 그러나 이 대표의 경쟁자들은 “기울어지다 못해 벽처럼 선 운동장에서 뛰라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군소 주자들은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대안으로 꼽고 있다. 각 정당과 시민 사회 인사가 제한 없이 참여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도 “민주당 대선후보를 민주당 당장 안에 가두지 말라”고 회견했다. 이에 김 전 총리 측은 “동의한다”는 입장이고, 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지사 측도 긍정적이다.

김나한 기자

국민의힘 예비주자만 10여 명

주요 주자 김문수·오세훈·한동훈·홍준표
당 관계자 “주자들, 출발신호만 기다려”
선관위원장에 유흥수·황우여·주호영 거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하자 국민의힘 잠룡들도 바빠졌다. 국민의힘은 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위원장에는 당 상임고문인 유흥수 전 의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6선의 주호영 의원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6일 “주요 주자들의 물밑 준비는 이미 끝났고, 출발 신호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설 본선 진용 구축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내부 공감대가 적잖다. 이 때문에 4월 말까지는 경선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대표적인 대선 주자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가나다순) 등이 꼽힌다.

김문수 장관은 6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속고 들어갔다. 김 장관은 5일 서울 관악구 자택 앞에서 출마를 촉구하는 지지층의 회견에 모습을 드러내 “아무런 욕심이 없다”면서도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선 안 된다. (국민의힘) 입당은 봐서 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말을 아꼈다. 오 시장 측은 “확

실한 대선 스케줄이 확정될 때까지 정치 메시지를 자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주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 인사와 자신을 지지하는 현역 의원을 유군 삼아 캠프를 꾸릴 전망이다. 오 시장 측에 따르면 경선 단계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분열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가야 한다”고 적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은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는 명대군 스타들로부터 자유로운 후보”라고 적었다. 친한계 의원은 “탄핵 찬성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다독일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화요일(8일)부터 퇴임 인사를 다니고, 금요일(11일)에는 대구 시청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라며 “마지막 꿈을 향해 상경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는 “탄핵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다. 탄핵 반대의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며 보수 진영의 단합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기현·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등 중진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철우 경북지사 등도 대선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손국화·이창훈·장서윤 기자

내년 의대정원 이르면 주내 확정... 미용의료 개혁은 스톱

의대생 복귀로 정원 확정 힘 받아
윤 과면 뒤 의정대화 가능성 커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의정 갈등 해결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의사들이 강하게 거부하는 피부 미용 의료 관리체계 개선 작업이 멈추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6일 “7, 8일 이들 의대생 수업 참여가 증가하면 이번 주에 내

년도 의대 정원(3058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한 달 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인원인 3058명으로 되돌리되 의대생의 수업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같이 정부가 강하게 압박하자 의대생은 지난달 말 전원 등록했다. 하지만 이후 수업 거부로 맞섰고, 의대 정원 확정도 계속 늦어졌다. 그런데 4일 현재 선고 이후 상황이 달라지면서 ‘조기 확정’ 쪽으로 기울고 있다. 서울대 의대 본과

3·4학년 생이 수업 거부를 두고 투표했고, 과반이 넘는 학생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고려대 의대도 학생회 자체 설문조사에서 상당수 학생이 수업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대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의사회는 7일 전국 시도 의사회장단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의협 집행부가 만나는 방

안 등을 논의한다. 한 대행 만남에서 2000명 증원 정책의 잘못 인정, 책임자 문책 등의 약속을 받아내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와 별도로 오는 13일 전국 의사대표자회의, 20일 장외 집회를 연다. 이 관계자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파면으로 의료개혁 작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정부 관계자는 “3차 의료개혁 작업은 중단하기로 했

다. 1, 2차 개혁안(이미 발표)의 후속 조치를 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달 19일 2차 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할 때 개원원허 추진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이번엔 미용 의료 개혁마저 중단하게 됐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 미용 의료 요구가 다양하다. 반드시 의사가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 명확하게 정리하는 등의 관리 체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대통령 파면 이후)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이보람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겠습니다.”



Cheltenham Homecare

첼튼햄 홈케어

간병인 서비스 (Homecare Services)

24시간 맞춤형 간병 서비스

환자 개개인에 맞춘 경험과 정성으로 돌보는 프리미엄 케어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도와드립니다.

가족 간병인 가능 및 환영

*간병인으로 일하실 분 찾습니다.



첼튼햄 홈케어

문의 전화: 800-764-1005

버지니아 | 펜실베이니아 | 메릴랜드 | 조지아 | 뉴저지
7501 Little River Tpke., Ste 205, Annandale, VA 22003

고객만족도 전미주* 1등 US이주투어** 41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가족, 친구에게 여행을 선물하세요! 아주투어의 **여행상품권 AJUMONEY!**

1-800-933-3011

LA 직통 213-388-4000 | 2789 W Olympic Blvd, #102, L.A., CA 90006

서울 02-522-8686 ■ info@usajutour.com ■ 무료픽업 가든그로브, 놀웁, 토렌스, 가디나, 풀러턴, 세리토스, 부에나팍, 다이아몬드비, 로렌하이츠, 얼바인(4명이상) 등

아주 크루즈

얼리버드 할인예약!! 크루즈의 특성상 오래되고 신뢰 할 수 있는 회사가 운영해야 안심입니다! 크루즈도 아주가 정답입니다!

투어멘토 박평식 대표 동행, 아이슬란드 투어 3일 포함!

아이슬란드/그린랜드/크루즈+관광(3일) 14일

▶8/20 (4월말까지) 인사이드 객실 \$4999+항공료, 오션뷰 객실 \$5399+항공료, 발코니 객실 \$6279+항공료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듀피보구르, 아퀴레이지, 이사포드르, 라그나르스 크르톡, 파우르, 누크 크루즈+블루리군, 골드서클관광 포함

로얄 프린세스호(14만5천톤) | 가이드 동행, 유람선+세금+항만세 포함

알래스카 8일 \$1499+항공료

▶5/24, 6/7, 28, 7/12, 26, 8/16, 30, 9/13

씨애틀, 주노, 스카그웨이, 글래시어베이, 케치칸, 빅토리아 섬, 씨애틀

가이드 동행

서지중해발코니 10일 \$3099

▶10/31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제노바, 나폴리, 메시나, 발레타(몰타)

가이드 동행

멕시코리비에라 6일 \$549

▶6/3, 7/15, 8/12, 9/9, 10/2

롱비치 출발 ▶4/28, 5/12

롱비치, 카타리나 섬, 엔세나다, 롱비치

가이드 동행

웨스턴카리브해 8일 \$1099+항공료

▶5/24, 격주 토

포트 로드데일, 코즈멜, 로이탄, 벨리즈 시티, 마우아일, 포트 로드데일



아주 히트 상품! 세계 최대/최초의 국립공원!

엘로스톤/그랜드티톤 4일 \$899+항공료

▶첫출발 5/12, 매주 월, 금

아주단독! 강가 신축 힐튼호텔, 한인관광사 유일 엘로스톤 시내숙박, 전일정 호텔 조식은 아주뿐, 아주단독! 최신형 대형버스 보장

출발보장! 밴프 숙박 보장!

캐나다록키 6일 \$1199+항공료

록키 5대 호수를 가는지 꼭 확인! ▶매주 월

모레인 호수, 페이토 호수, 보우 호수, 루이스 호수, 에메랄드 호수 (벤쿠버 시티투어, 록산산, 자스퍼 이시바스카 폭포, 콜럼비아 아이스필드, 밴프 스프링스 호텔, 밴프 곤돌라, 보우강/폭포, 비고리아 마운틴, 부차드 가든)

엘로스톤 100배 즐기기

힐튼!! 힐튼!! 힐튼!! 아주는 힐튼호텔을 이용합니다!

IDAHO FALLS by HILTON

엘로스톤 바로 앞! 웨스트 엘로스톤 숙박! 고객의 만족을 위해 더 비싸고 좋은 호텔로 진행!!

엘로스톤 바로 앞 화이트 버팔로

발데즈 오션뷰 호텔 2박!

발데즈 알래스카 6일 ▶매주 월 \$1699+항공료

발데즈 오션뷰 호텔 2박, 연어화+와인특식, 앵커리지, 먼사포 폭포, 말고리 폭포, 연어부화장, 곰 연어사냥 체험, 발데즈 박물관, 발데즈 역사체험, 웅글스 국립공원, 세계최대 국립공원(유네스코 지정, 영화관련, 세계 최고 육지방하인 마타누스카 빙하)

큰바위얼굴/크레이지호스 4일 \$1049+항공료

▶5/23, 7/4, 8/29

덴버, 사이언, 크레이지호스, 마운트 러쉬모어 래피드, 배드랜드, 록산산, 에스테스 팍 등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엘로스톤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25 VIP버스 도입기념! NEW 샌디에고 당일 | 태평양기차여행/레드우드 2일 | 데스밸리/라스베가스 2일 | 세도나/몬테주마 캐슬 3일

LA 출발상품으로 항공료 불포함 가격

▶4/22, 5/10 **점심 포함 \$109** ▶4/28, 5/13 **449 ▶ \$329** ▶4/29 **시막 꽃구경! \$329** ▶5/12 **549 ▶ \$399**

아주모국관광

1. 27인승 VIP 버스 2. 초특급 5 atar 호텔 3. 전국 각지 맛집 탐방 4. 한국지사 직접운영 단독출발인자 꼭 확인하세요! 여행의 질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제주+모국일주 10일 ▶수 \$2199+항공료

제주+모국일주+서울 11일 ▶수 \$2499+항공료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전통성당, 담양 죽녹원, 목포 해상케이블카, 순천 낙안읍성, 여수 오동도, 낭만포차 거리, 진주 축석루, 통영 중앙시장, 외도, 제주 2박(통감치구이, 흑돼지구이 특식 2회), 부산 국제시장, 경주 불국사 & 동궁과월지, 안동 하회마을,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설악산 국립공원, 신홍사, 권금성 케이블카

음식 포함 제주 3일 ▶일 \$499+항공료 부영 호텔(신라 가늌)

서해/제주 7일 ▶수 \$1499+항공료 **동해/제주 6일 ▶일 \$1299+항공료**

서해/남해 5일 ▶수 \$999+항공료 **동해/부산 4일 ▶화 \$799+항공료**

베트남/캄보디아 7일 \$1199+항공료 ▶4/16 하노이, 엔트, 하롱베이, 티툼섬, 씨엠립, 앙코르 톰, 앙코르왓, 톤 레이크 등

일본일주 7일 ▶9/16, 10/7, 21 \$1899+항공료 ▶11/4 신간선 2회 온천호텔 3박, 호텔朝食 및 특급식사, 인천 공항에서부터 가이드 동행

메디컬 의료 관광

의료관광도 최고의 병원으로 모십니다! 더 착한 가격과 더 업그레이드되는 서비스! 아주투어의 모든 의료관광 상품은 항공료 불포함 가격입니다.

서울시 안복관 양지국제병원 **프리미엄 서비스 차움(차병원) 청담차병원**

정통미서부

새 5성급 호텔! 폰테인블루 숙박

아주단독! 라스베가스 스피어

아주로만 가야하는 5가지 이유!

1. 최신형 버스! 32인승 새 VIP 버스!
2. 새 5성급 호텔 라스베가스 폰테인 블루 숙박!
3. 한인 유일의 컨트랙트 라스베가스 스피어!
4. 꼭 확인하세요! 라스베가스 2박인제!
5. 단독 컨트랙트 요세미티 마리포사 그로브!

미서부완전일주 7일 ▶월 \$1489+항공료

2개 상품이 하나로! 더 착한 가격 & 알찬 일정! 그랜드캐년, 브라이스, 자이언, 앤텔롭캐년, 라스베가스,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17마일, 솔뱅 등

그랜드/브라이스/자이언/앤텔롭캐년 4일 아주단독! 페이지 햄트 숙박! 라스베가스 조인 ▶월 \$839+항공료

미서부 투어의 핵심 4대캐년을 한번에!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4일 ▶월 \$889+항공료

레디스, 메리엇 특급호텔 2박!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17마일, 솔뱅 등

라스베가스 조인

그랜드 씨클+세도나 7일 ▶월 \$1339+항공료

미동부 뉴욕맨하탄, 워싱턴DC, 나이아가라 폭포, (토론토, 킹스턴, 퀘벡, 몬트리올, 우드버리 등) **올드퀘벡 숙박**

5일 \$1150+항공료 **8일 ▶토 \$1700+항공료** **▶수, 토 \$2100+항공료 (VIP버스)**

캐나다동부 6일 ▶목 \$1399+항공료

명품유럽

북/서유럽 2인입체완벽가이드! 전문 인솔자+현지 가이드 전일정/전구간 당간의 유람선타고 1박! 오션뷰 보장! 스웨덴 항공이동으로 10시간 절약 편안하게!

\$1000 환인전시 북유럽/발틱 7개국 14일 ▶5/19, 6/4, 16, 7/15, 8/5, 19, 9/2 \$5999 ▶ \$4999+항공료 **\$800 환인전시 북유럽 4개국 11일 ▶4/22, 5/12, 6/12, 7/12, 8/12, 9/12 \$4999 ▶ \$4199+항공료**

\$200 환인전시 발틱일주 3개국 6일 ▶5/27, 6/12, 24, 7/23, 8/13, 27, 9/10 \$2199 ▶ \$1999+항공료

영국일주+툰립축제(벨기에/네덜란드) 12일 ▶4/21 \$6299+항공료

영국일주 10일 투어멘토 박평식대표 동행 ▶4/21 \$5499+항공료

주의의 선별 옵션! 서유럽 11일 \$3399+항공료 **7일 \$2299+항공료**

▶4/17, 5/1, 15, 6/5, 19, 7/8, 29, 8/12, 9/2, 16, 30, 10/14, 12/21

이태리일주 7일 \$1999+항공료 ▶4/21, 5/5, 19, 6/9, 23, 7/12, 8/16, 9/6, 20, 10/4, 18, 12/25

동유럽/발칸 13일 \$3299+항공료 ▶4/18, 5/2, 23, 6/13, 7/11, 8/1, 9/4, 18, 10/2, 16

동유럽일주 7일 \$2099+항공료

크로아티아/발칸 9일 \$2599+항공료 ▶4/22, 5/6, 27, 6/17, 7/15, 8/5, 9/8, 22, 10/6, 20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13일 \$2999+항공료 ▶4/19, 5/8, 9/10, 10/1

튀르키예/그리스+산토리니 13일 ▶5/13, 6/3, 9/16, 10/7 \$3399+항공료

튀르키예일주 10일 \$1699+항공료

그리스+산토리니 9일 \$1999+항공료 ▶4/14, 5/20, 6/9, 9/22, 10/13

스페인/포르투갈 11일 \$2499+항공료 ▶4/30, 5/14, 6/4, 9/9, 23, 10/15

인솔자 동행, 전일정 옵션포함 알프스+돌로미테 10일 \$5399+항공료 ▶9/15

나는 돌로미테 가봤니? 아주에서 우리 모두~~모두 다~~간다~!!

경험 많은 회사라야 안심입니다! 41년의 경험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몽골+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4개국 14일 ▶5/12 \$5900+항공료

특급호텔

특전: 전일정 식사, 부하라 공연식, (몽골) 허러허, 사브사브, 열차/국내 항공료 포함, 유람선, 곤돌라 풍물: 낙타투어, 전통공연, 전 일정료 포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 12일 \$4900+항공료

▶5/12 **특급호텔**

남미일주 13일 ▶3인이상 수시 \$4699+항공료

브라질/아르헨티나 7일 ▶3인이상 수시 \$2599+항공료

페루일주 7일 앙카, 마추픽추, 나스카 ▶4/21, 5/5, 19 \$2199+항공료

멕시코시티&중부 5일 ▶월 \$1249+항공료

유니사막(볼리비아)+페루일주 10일 ▶4/21, 5/5, 19 \$3899+항공료

코스타리카 6일 \$1199+항공료

힐튼호텔 보장 ▶매주 월

세계최대의 활화산온천에서 야외 온천 때바론 온천욕, 호텔 식사, 로스라코스 천연온천호텔 2박

칸쿤 ▶매일출발 HYATT 오션뷰(올인크루시브) 4일 \$1100+항공료 **5일 \$1500+항공료** **6일 \$1900+항공료**

로스카보스 (바하켄디야) ▶2인이상 수시 올인크루시브 4일 \$1050+항공료 **5일 \$1350+항공료** **6일 \$1650+항공료**

아르헨티나와 칠레 파타고니아 모두 보는 상품입니다!

파타고니아(2개국) 15일 &빙하탐사 크루즈 특급호텔 \$11900+항공료

▶4/10, 11/6, 12/4

여기를 알기엔 파타고니아를 만난 것! 토레스 델 파이네! 기막히게 멋진 국립공원 푸에르토 나탈레스! 지구의 최남단 **빙골마을 우수아이아** **가이드 동행!**

칠레 파타고니아 10일 &빙하탐사 크루즈 \$8449+항공료

▶4/10, 11/6, 12/4

특급! 나일강크루즈! 카이로 5성 힐튼숙박! 대대리미드!

두바이/이집트일주 12일 \$3899+항공료

▶10/13, 11/10, 2/9/26 **전문 가이드 동행/전일정 입장료 포함**

이집트/요르단 12일 \$3999+항공료

▶11/10

이집트일주 9일 \$3299+항공료

▶11/10

동남아&일본

아주에서 가시면 안심입니다! 한국지사서 목적을 골라 편안하고 알찬 일정으로 모십니다!

일본일주 7일 \$1899+항공료

▶9/16, 10/7, 21, 11/4

베트남/캄보디아 7일 \$1199+항공료

▶4/16

태국/캄보디아/베트남 12일 \$1700+항공료

▶4/14, 10/20, 11/3, 11/7

하와이/마우이

▶월, 목 출발, 공항 왕복픽업 호텔朝食, 오후우성 일주 호놀룰루 시내관광

와이키키 리조트	와이키키 메리엇	해트 레진 와이키키	셰라톤 와이키키
4일 \$949+항공료	4일 \$1149+항공료	4일 \$1249+항공료	4일 \$1399+항공료
5일 \$1099+항공료	5일 \$1349+항공료	5일 \$1499+항공료	5일 \$1749+항공료

아프리카+UAE

세렝게티 & 초배 & 옹고옹고롱 국립공원 사파리, 세계 최고높이 버즈 칼리파 전망대 사파리를 제대로 즐기는 아주투어! 호텔/식사 흥가로 소문난 아주투어!

두바이/아부다비 16일 ▶10/15, 2/23/26 \$13900 ▶ \$9999+항공료

베테랑 가이드 동행! 1. Victoria falls 탐구 호텔 2. 6성급 사파리 맛집 호텔 3. 에어콘 프리미엄 사파리 차 4. 사파리투어를 항공이동으로 2일 절약 5. 두바이 레이저빔 & 분수쇼 관람하며 식사 6. 테이블 마운틴에서 익스프레스 케이블카

피지 힐튼! 호텔 비교! 가격이 다르면 품질이 다릅니다!

남태평양

A 피지/호주/뉴질랜드 B 뉴질랜드/호주

A 13일 \$3799+항공료 **B 11일 \$3299+항공료**

가이드 동행! ▶10/21, 25, 11/4, 25, 12/2, 25, 2/2/26, 23

4월말까지 예약시

인도/네팔 14일

▶11/10 \$4899 ▶ \$4299 ▶ \$3999

가이드 동행! \$600 환인전시 +항공료

NO 옵션, 델리 IN & OUT, 국내선 항공 5회, 전일정 5성급호텔, 전통식 & 호텔식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항공 여행은 출발 3주전 결재하는 LA출발 비수기 주중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내용은 사전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의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각 상품별 요금은 US아주투어 웹사이트 www.usajutour.com에 명시되어 있듯이 필수 서비스 Fee가 불포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상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총선 출구조사에 격노한 윤 “그럴 리 없어, 당장 방송 막아”

(2024년)

대통령 윤석열이 과면됐다. 등장만큼이나 파괴적인 퇴장이다. 구세주 같은 정치인은 없다는 걸 다시금 확인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자가 오독(誤讀)·오판(誤判)하면 나라가 어디까지 흔들리는지도 확인했다.

#윤석열은 보수의 희망이었다

2021년 4월 어느 날,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을 도운 뒤 청와대 참모로 근무했던 이가 국회 서점에서 서성했다. 당시 갓 출간된 『윤석열의 진심』이란 책 앞이었다. 그에게 물었다.

“형, 뭐해요?”

“윤 총장 관련 책을 사람들이 더 봐야지. 앞으로 쓸 책이.”

‘최순실 특검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은 박근혜를 영어(囹圄)의 몸으로 만든 날카로운 칼이었다.

“마음이 괜찮아요? 박 전 대통령한테 안 미안해?”

“안 좋지. 미안하지. 그런데 이겨야 할 거야. 암만 봐도 윤 총장 말고는 이길 수가 없어.”

대선 가도를 걷기 시작한 윤석열은 말했다.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윤석열에게 이재명은 그저 피의자였다

대통령직인수위 때, 그는 이재명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과 독대했다.

“정말 수고했어요. 그런데 대선은 끝났어도 범죄는 범죄잖아요. 끝까지 파헤치세요.”

거야(巨野)의 대표 이재명은 그에게 그저 피의자였다. 그는 이재명과 의 회담을 꺼렸다. 협상이나 타협을 몰랐던 그에게 과반 야당은 그저 ‘벽’이었다. 야권의 비토로 국정 운영이 뜻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강고해졌다.

2023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했다. 22대 총선 참패 직후, 취임 721일 만에 딱 한 번 이재명과 만났다. 둘은 각자 할 말만 했다.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의 화(火)는 피아(彼我)를 낳아들었다

지난해 7월 18일은 가을에 대비 같은 날이었다. 24조원 규모인 체코의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만찬 중에 소식을 들은 그는 식탁을 “탕” 내려칠 정도로 기뻐했다. 소폭이 두어 순배 돌았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나섰다.

“분위기도 좋은데, 그간 못했던 불편한 얘기 조금씩 하시오.”

22대 총선에서 ‘175(민주당) 대 108(국민의힘)’로 깨진 3개월 후였다. 참석자들은 ‘이때다’ 싶었다.

“아니, 이 좋은 날 뭣 하러 그런 얘길 합니까. 쓸데없이 말이야.”

‘보수의 희망’서 ‘파괴적 퇴장’까지

1야당 이재명 대표도 그저 피의자

윤 “대선 끝났어도, 끝까지 파헤쳐”

방미 때도 우파 유튜브 1시간 통화

유능한 참모라도 직언하면 멀어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

결국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했다

좌중은 곧장 얼어붙었다. 바른말은 ‘없던 말’이 됐다.

지난해 총선 직전, 의대 정원 문제가 뜨거웠다. ‘막 밀어붙이는 건 아닌데...’란 참모가 많았지만, 말을 못 했다. 이때, 직을 걸고 “안 된다”고 했던 이들이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이다. 물류대란의 불을 켜던 이관섭과, 이태원 참사 때 발 빠른 보고로 큰 화를 막았던 한오섭은 유능한 참모였다. 그러나 이들은 “아니다”고 했다가 회의에서 배제됐고, 웃을 벗었다. 다른 참모들에겐 시그널이 됐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혔다

22대 총선날이던 4월 10일 저녁, 일부 참모가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몇 분 일찍 듣고 보고했다.

“그럴 리가 없어, 당장 방송 막아!”

분노에 찬 목소리가 문밖에서도 들렸다. 선거 전부터 여러 지표가 패배를 가리켰지만 안 믿었다. 패배를 부정선거 탓이라 여겼다. 극우 유튜브버들의 주장을 진짜라 믿었다. 집권 초부터 그는 유튜브를 좋아했다. 참모들에게 몇몇 채널을 “꼭 보라”며 권했다. 2023년 4월 국민 방문 중이던 미국에서도,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가 예정됐던 날 아침에도 우파 유튜브와 1시간을 통화했다. 지난해 6월 검사 출신 소장파 김웅 전 의원이 라디오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꼭 대통령에게 당부드리고 싶다. 제발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 이리다 우리

다 죽는다.” 허사였다. 계엄령의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론이었다. 기자회견은 네 번이 전부였다. 체포된 1월 15일에도 그는 찾아온 의원들에게 말했다. “레거시 미디어는 편향돼 있다. 잘 정리된 유튜브 정보를 보라.”

#김건희는 아내 그 이상이었다

임기 첫해인 2022년 가을, 기자는 이른바 ‘여사 라인’ 참모 중 한 명과 식사했다. “여사님 참 대단하셔. 대통령님이 저녁 전 관저에 가면 뭐하시는 줄 알아요? 앞치마 두르고 김치찌개를 끓이셔. 계란말이도 만들고. 그러곤 여사님과 그날 일과를 놓고 한참을 얘기해. 국정 전반이다 화두야.”

대통령실 실무급 참모들이 여사를 ‘브이 투(V2)’라 부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다. ‘브이’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약어다. 많은 이가 ‘V2’ 문제로 걱정이 태산이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선택은 한결같았다.

#자신에게만 충성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의 상징어였다.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 윤석열로 이끌었다. 정작 본인은 맹종(盲從)을 요구했다.

이건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준석도, 한동훈과도 그랬다. 결에는 총참모관 후보인 극소수 장관들, ‘여사 라인’ 등 일부 참모 정도만 남았다. 결과는 계엄과 파면이었다.

권호 기자



1060일 재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지막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 응했다. 총 6차례 진행한 도어스테핑은 용산 이전과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었지만 갖은 논란을 촉발하며 반년 만에 중단됐다. [중앙포토]

용산 “윤 영접하라” 한동훈 “가르치려 드나”... 9월 만찬 때도 다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기 직전 친윤계 핵심 A의원은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과 만났다. A는 의외의 미션을 받았다. “가서 한동훈을 만나 봐라. 나는 너무 가까워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A에 따르면 이렇게 “내가 친해서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인사 리스트에 올린 사람 중 윤 전 대통령이 주변에 평가를 맡긴 인물은 두 명이었다. 당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상민 변호사. 그들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실제로 부상했다.

윤 전 대통령이 A에게 내린 또 다른 미션은 “서로 도움이 될 테니 한동훈과 잘 지내보라”였다. 대선판 한가운데서 이미 정권 창출의 경험을 해본 A에게 자신의 최측근과 교류하라는 건 무슨 의미였을까. A는 이렇게 해석했다. “대통령은 한동훈도 드라마를 만든다면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의 밑그림은 예상보다 빨리 등장했다. 2023년 10월 서울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위기감을 느낀 여권이 같은 해 12월 여당 당권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로 뼈저거리던 윤·한 관계는 마리 앙투아네트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전화를 받은 한 전 대표가 물러서지 않다가 결국 전화를 먼저 끊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총선 패배엔 ‘윤·한 갈등’도 작용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3개월 뒤 국민의힘 전당

대회에 출마해 60%가 넘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권을 스스로 쟁취했다.

이후에도 둘의 불편한 기류는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전 대통령의 만찬 직전 의전 문제를 두고 벌어졌던 일은 둘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당시 만찬 장소인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 참석자들이 집결했고, 윤 전 대통령이 곧 도착할 상황이었다.

▶이기정(의전비서관)=“대통령이 곧 도착하니 영접하러 가시오.”

▶한동훈=“저는 영접 안 합니다.”

▶정진석(비서실장)=“당 대표가 대통령 영접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한동훈=“날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서 설득하며 한 전 대표는 영접에 나섰지만, 이때 오간 얘기는 여러 입을 통해 퍼져 나갔다. 윤 전 대통령에게 파국을 안긴 12·3 비상계엄 때도 둘은 충돌했다. 계엄 당일 여권에서 가장 먼저 계엄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낸 정치인은 한 전 대표였다. 계엄 이튿날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등 여권 핵심부가 모인 자리에선 한 전 대표가 “왜 저를 체포하라 하셨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허진 기자

BRADDOCK FAMILY DENTAL
Children & Adults: Sedation, Cosmetic & Implants

브래덕 패밀리 치과

www.BraddockFamilyDental.com

진료시간 월 ~ 금: 8 ~ 5PM
수요일: CLOSED

최신 3D 장비보유, 최첨단 CT 촬영과 디지털 X-RAY, Intra-oral Scanner로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최선의 치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임플란트
- 크라운
- 일반치과
- 신경치료
- 임플란트 틀니
- 미용치과
- 교정
- 충치치료
- 잇몸치료
- 발치
- 전체/부분 틀니
- 응급환자

원장 조상욱 (Samuel Cho, DDS, FICOI)

- UVA
- MCV School of Dentistry
- AEGD Residency @ MCV
- Fellow of International Congress of Oral Implantologists(ICOI)
- Invisalign Certified Provider
- American Dental Association
- VA and Northern VA Dental Society

모든 치과보험(PPO) 받습니다. 메디케어 (VA SMILES FOR CHILDREN) 받습니다. 메디케어 보험 받습니다. •Anthem(Liberty) •Aetna •Humana •United

Be Social with Us!
오피스
571-339-3628
한국어 상담
571-339-3682

(조지메이슨 대학 건너편)
Braddock Rd
★
Braddock Family Dental
10513 Braddock Rd.
Fairfax, VA 22032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랙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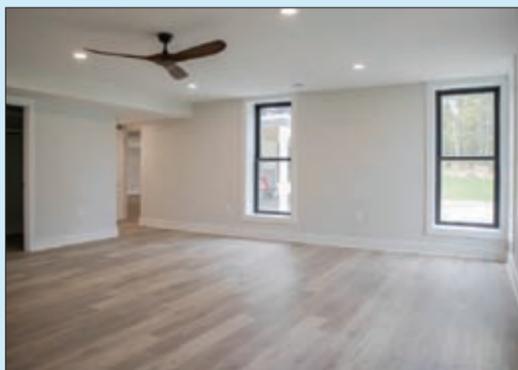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지붕 ★
스페셜 프로모션
10sq 이상
\$3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늘 여러분 곁 지키겠다” ... 자기편만 보는 윤, 돌아올 결심?

지지 단체 국민변호인단에 입장문
국민의힘은 “윤 다시 나서나” 우려
“정치 재개 땀 중도층 흡수 걸림돌”
경호 공사 후 9일쯤 관저 나올 듯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 모습.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국민변호인단에게 전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퇴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록 기자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자신의 지지 단체인 ‘국민변호인단’ 앞으로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국민변호인단에게 전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 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국민변호인단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주도해 만든 탄핵 반대 단체다.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가입했고, 현재 회원수만 19만6000여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날 메시지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거리 정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 스스로 억울하다라도, 보수 재건을 위해 메시지를 내선 안 된다.

중도층 흡수에 굉장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자중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관저에서 반탄파 의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따로 불러 1시간가량 접견하며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또한 현 정국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털어 놓고, 현재의 파면 결정을 예상치 못했다는 듯 놀라움을 표했다는 게 국민의힘 인사들의 전언이다. 파면 선고 당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30분 차담회를 가졌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가까운 인사는 6일 통화에서 “야당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크다”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6일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윤 전 대통령은 9일쯤 사저로 퇴거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우선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가는데, 화요일까지 경호 관련 공사를 마친 뒤 수요일쯤 이동할 것 같다”고 했다. 8년 전 윤 전 대통령과 똑같이 금요일에 파면 결정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요일 오후 7시쯤 서울 삼성동 단독주택 사저로 이동했다. 박태인·이창훈 기자

헌재, 윤 파면 4월 1일 결정 ... 연구관 휴가 보내며 ‘철통 보안’

윤 파면 선고 최종본 수정 작업 때 재판관 8명과 연구관 1명만 참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재판관 평의부 결정문 및 선고요지 작성 작업 모두 철통보안 속에서 이뤄졌다. 최종 결론인 선고요지 작성에는 대통령 탄핵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 연구관 중에도 극소수만 참여해 다른 연구관들은 선고 당일까지 결론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선고기일을 지정한 지난 1일 재

판관 평의부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을 마쳤다. 이후 그동안 써온 결정문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본을 완성하는 작업을 벌였다고 한다. 결정문 최종본이 완성된 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당일 심판정에서 읽을 선고요지를 만드는 작업이 이어졌다. 결정문 초안에는 인용·기각(또는 각하) 모든 의견과 그에 이르는 논리가 다 담기기 때문에 이 과정에 참여한 연구관들은 최종 결론을 알기 어렵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의 핵심은 초안에서 기각(또는 각하) 부분은 덜어낸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문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요지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엔 10여명에 달하는 TF 전원이 아닌 수석·선임연구관 3~4명 정도만 관여해 외부 유출 가능성을 줄였다고 한다. 또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요지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TF 연구관 다수는 연차를 내고 아예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종 결정문과 선고요지도 1일 평결

이후 4일 선고 직전까지 여러번 수정됐는데 연구관 1명이 최종본 작성을 맡아 재판관 8명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수정작업을 했다고 한다. 출력물로 전달될 경우 결론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문 대행이 낭독한 읽은 선고요지와 최종본 내용은 9명(재판관 8명과 담당 연구관 1명)만 알고 있었던 셈이다. 재판관 8명은 선고 당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어 최종본을 검토해 한번 더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①항)

으로 시작하는 5쪽 분량의 결론 부분에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통상 결정문 작성은 주심 재판관이 주도하는데 이번에는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뿐 아니라 재판관 8명 모두가 결정문 작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결정문은 재판관 8명 지시에 따라 연구관들이 협업한 것”이라고 말했다. 철통 보안과 치열한 논의, 재판관들의 협업을 거쳐 11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이 탄생한 것이다. 최서인 기자

헌재 공백 어떻게 ... 독일은 후임자 임명 때까지 근무

헌정 마비사태 막을 보완책은 오스트리아는 예비재판관 6명 임명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공백 해결이라는 숙제를 남겼다. 재판관 9명이 정원인 헌법재판소가 심리정족수(7인)도 못 채운 6인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접수해 우여곡절 끝에 8인 체제를 갖춰 파면 선고까지 내

렸다. 하마터면 재판관 공백으로 헌정 마비 사태를 맞을 뻔한 것을 놓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관 공백은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가 후보자 추천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두 달간 공백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로 12월 14일 윤

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됐다. 그제야 국회는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선출에 속도를 내 12월 26일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같은 달 3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8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재판관 장기 공백이 처음도 아니다.

2011년 7월 조대현 전 재판관이 퇴임한 뒤 여야 대립으로 1년 넘게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면서 헌재는 14개월간 ‘8인 체제’로 운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인 2017년 1월 대통령 지명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에도 10개월간 8인으로 운영됐다. 전문가들은 독일처럼 후임자가 임명 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등 임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재판관 임기는 12년이지만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 계속 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을 소개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총 14명 재판관 외에 6명의 예비재판관을 함께 임명한다. 최서인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 (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증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 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전약은 한국에서

2024 A Return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산업화·민주화 넘을 시대정신 있어야... '21세기 헌법' 필수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 특별기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까지 내 마음 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말이다. 나쁜이였겠는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을 반복해 던졌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선고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생생히 전달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대한국민(國民)’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라는 진술은 ‘대한민국(民國)’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임을 오롯이 증거한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은 지구적으로 주목받았다.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가 아시아 민주화를 선도해온 것은 국민적 자부심이 었다. 군사독재와 싸워 이겼고, 절차적 민주주의, 삼권분립, 국민주권 정신을 뿌리내



김호기

리게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민주공화국을 지켜내고, 국가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 새로운 출발점에 선 마음이 기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갈 길을 내다보면 걱정이 앞선다. 그 걱정은 세 방향이다. 첫째는 ‘두려운 미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성장·초저출생·초고령화·신냉전질서라는 복합 위험 위에 위태롭게 놓여 있다. 둘째는 ‘피크 코리아’다. 복합 위험의 결과, 현재가 발전의 정점이라는 불안이 전 세대와 전 계층을 뒤흔들고 있다. 셋째는 ‘정부의 실패’다. 복합 위험의 극복에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떠맡아야 하는데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문제 해결에 실패해 왔다.

탄핵은 시작일 따름이다. 이제 어떻게 대통령선거를 치를 것인지, 어떤 정부가 들어설 것인지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 정치사회에 주문하고 싶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설 새로운 시대정신을 내놓아야 한다. 21세기 다원주의를 고려할 때 이 시대정신이 단수일 필요는 없다. 시대정신이 품어야 할 세 가지 비전은 새로운 성장, 민주적 국민통합, ‘26년 체제’ 수립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첫째, 2025년 현재 우리 경제는 안으로 저성장과 불평등의 구조화, 밖으로는 미국 트럼프정부 발 ‘관세 전쟁’의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성장이 요구된다.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인공지능(AI) 등에서의 신성장전략을 구체화하며, 디지털 전환에 조응하는 신사회협약을 체결하고, 미중 경제 전쟁에 대응하는 신통상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도 더없이 중대한 과제다.



화환 사라진 현재 6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화환이 치워지고 철제 펜스가 세워져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는 모습.

둘째, 정치 양극화가 강화되고 진영적 사유가 일상화되는 ‘두 국민’ 문화가 이대로 놓아둘 순 없다. 다원적 정보사회에서 기성의 권위적 국민통합으로는 ‘한 국민’ 국가를 일구낼 수 없다. 협

오와 적대를 넘어선 관용과 타협의 민주적 국민통합이 뿌리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 시민교육은 물론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위시한 공론장 개혁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지난 4개월 동안 제약적 대통령의 그늘이 또 다시 선명히 드러났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혁, 경제사회 기본권 확대 등 21세기에 걸맞은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대선 과정에 공약으로 가다듬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적 속의 과정을 거친 다음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후보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87년 체

제’의 한계를 넘어선 ‘26년 체제’의 수립에 대한 대국민 약속이 대선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선고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 제언은 대선에 출마하는 정치인이라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제1의 계명이다.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현에 있다. 진영의 대통령을 넘어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간절하게 기다린다.

국민의힘, 내일 선관위 구성 위원장에 유흥수·주호영 등 거론

국민의힘은 오는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 경선을 위한 당선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선관위가 구성돼야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한 논의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도 박수로 추진했다.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을 포함한 지도부 거취 문제를 당에 일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원내대변인은 “일부(지도부 사퇴) 의견을 낸 분들도 있지만, 현 지도부가 남은 대선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에서 재신임을 박수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선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유흥수 당 상임고문,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등 원로 인사들이 거론된다.

원내 인사 중에서는 6선이자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린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 당 경선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 원내대변인은 김상욱 의원 등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당내에서 나오는 데 대해 “지도부에(조치를) 일임하는 것으로 중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들에 대해 당장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곤봉으로 경찰버스 파손한尹지지사 구속

서울중앙지법 “도망할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남성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당지 판사는 이날 오후 20대 남성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체포돼 종로경찰서로 넘겨졌으며,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파면 선고에 차량 부수는 윤 대통령 지지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주택	1610 Westmoreland St, McLean, VA	SALE	\$1,999,900	NEW
매매 및 렌트	16309 Sandy Bottom, Woodbridge	COMING SOON	\$970,000	NEW
	9490 VA Center Blvd, Vienna, VA	SOLO	\$501,000	SELL
	1474 Hampton Hill, McLean, VA	SOLO	\$1.3M	SELL
	12495 Cliff Edge Dr, Herndon, VA	SOLO	\$1.2M	SELL
	10** Salt Meadow, McLean	SOLO	\$2.73M	BUY

사업체 매매: 델리샵(DC) \$150K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페어팩스 지역 북-어머 나을 집 렌트 리스팅 50여채 있음	4/1-7/31 일주 가능한 집	\$1,800-\$5,200 가격대 렌트 집 리스팅. 관심있는 분 연락 바람
올 여름에 파견 나올 주재원 6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6월 말-8월 초 일주 희망	\$2,000-\$5,500 가격대 렌트
3618 Cantrell, Fairfax, VA	2년	크레딧 좋은 Non Korean 가족
6406 Hawk View Ln, Alexandria, VA	2년	크레딧 좋은 Non Korean 가족
9411 Myra Dr, Great Falls, VA	3년	비교적 좋은 조건이지만, 주인속 에이전트와 오랜 거래 덕분에 수 많은 경쟁 신청자 불고 특별. 주인 알. 에이전트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포리 손심 뺐다고 할 역시 부동산도 사들이 하는 일. 주재원
4658 Braddock Green Ct, Fairfax, VA	3년	3번째 신청자지만, 오랜 노하우로 특별. 주재원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마켓에 놓리지 않고 항상으로 보유하고 계약 완료. 국외거
1042 Warbler Place, McLean, VA	3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다음 세입자 바로 연결. 한국에서 영상보고 3년 렌트할. 주재원

그의 30여채 더 있음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젠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한국형 경제 안보’ 개념 설정해 새 산업·무역 전략 짜야

조원경의 이코노믹스

UNIST 교수
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내린 결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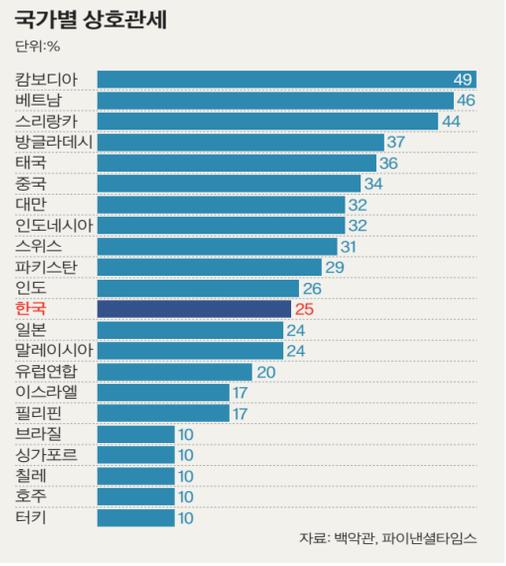
캄보디아(49%), 베트남(46%), 인도네시아(32%), 중국(34%), 펜타닐 관세 20% 별도, 대만(32%), 인도(26%), 일본(24%), 유럽연합(EU·20%) 등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 57개국은 최악의 상황이라며 당황한 모습이다. 상호관세가 관세를 포함한 각종 비관세 장벽과 환율,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해 무역적자를 분석한 결과라고 하지만 계산은 단순했다. 미국의 무역 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눠 계산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원래의 모습과는 정반대다. 상호관세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등장한 개념이다. 보호무역에서 관세를 낮춰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자는 취지였다. 1933년 대통령에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이듬해 6월 12일 ‘상호무역 협정법’을 통과하고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폐지했다.

‘WTO 무용론’ 트럼프 탈퇴 주장도

『월스트리트 저널』을 쓴 경제사학자 존 스틸 고든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대공황을 촉발했다고 주장한다. 1930년 6월 17일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의거해 당시 미국은 2만여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매겼다. 국제 교역이 급격히 줄고,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와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유례없는 대공황이 발생했다. 트럼프의 대대적인 관세 폭탄이 약 100년 전 대공황을 삼키시킨 보호무역 정책을 떠올리게 하는 이유다.

대공황의 대자비라면 과장일까. 상호관세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3일(현지시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약 5.97% 폭락했고 다음 날도 5.82%의 낙폭을 보였다. 세계 교역 감소와 물가 상승,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도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올랐다. 미국에 맞서 중국이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갈등도 더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질서를 와해할 수 있다는 시각도 팽배해졌다. 상호관세와 보편관세 등이 WTO의 각종 원칙과 배치되거나 어긋나기 때문이다. 개별 협상으로 국가별 차등 관세를 적용하는 상호관세는 WTO의 최혜국대우(MFN) 원칙과 정면충돌한다. MFN 원칙에 따르면 WTO에 가입한 회원국에 부여한 우대 조치를 다른 회원국에도 차별 없이 부여해야 한다. 미국의 보수 진영은 WTO의 최혜국대우(MFN) 조항으로 미국이 수입품에 세율을 낮게 적용한 것이 무역 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전 세계 185개국에 최소 10%를 부과한 보편 관세는 자국산과 외국산 제품을 차별하지 말라는 WTO의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트럼프의 전방위 관세는 단순한 보호주의 심화를 넘어 다자 무역질서의 파괴를 의미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등 기존의 양자주의 협정에 대한 존중도 폐기된 인상이다. 한국이 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MFN 관세율은 13.4%지만, 미국과 FTA 체결로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 수준에 불과하다. 동맹국인 한국이 자국보다 약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높은 비관세 장벽으로 대미 흑자가 5년 사이 3배 늘어났으며 불공정 무역 관행과 부정행위로 몰고

가는 것은 도가 지나친 처사다.

이처럼 WTO 체제와 FTA를 무력화하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WTO 체제의 한계와 그에 대한 미국의 불만에서 기인한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때부터 ‘WTO 무용론’을 주장하며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필요하다면 WTO를 탈퇴하겠다고 했다. 당시 트럼프는 중국이 시장 개방에는 미흡하면서 WTO 체제를 통해 막대한 부당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WTO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개도국) 사이 양분법을 쓴 결과 일부 WTO 회원국이 개도국 지위를 누리며 불공정한 혜택을 얻은 만큼,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확증 편향은 트럼프 2기에 더욱 공언해왔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술한 예외 규정 남발로 불공정한 무역 행위 제지에 한계를 드러내자, 1995년 탄생한 WTO는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새로운 무역 규범을 만들어 다자간 무역 협상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WTO도 많은 한계를 노출하며 그 위상이 흔들렸고 결국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공정 경쟁 방기했다고 비판받는 WTO

특히 미·중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WTO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개도국 특혜는 빛이 바랬다. 중국은 비시장경제국(NME) 지위를 15년간(2001~2016) 적용받는 조건으로 2001년 WTO에 가입했고 2016년 말 미국-EU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인정을 거부했다. MES란 원자재와 제품 가격, 임금, 환율 등 한 국가

의 경제 활동이 정부의 간섭이 아닌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제 체제임을 교역 상대국이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비시장 경제국가로 규정하고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시장 경제 국가와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국가 주도-비시장적 경제 관행이 강화됐고, WTO가 교정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중국의 비시장적 보조금 정책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어업 등 주요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유수 기업조차도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미국은 산업보조금과 기술 이전 강제,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속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반하는 중국에 불만이 많지만 WTO는 무역 분쟁 해결에서도 책임을 방기했다. WTO 분쟁 해결 시스템은 사건 해결에 수년이 걸리는 탓에 악명이 높다. 사실상 ‘지연된 정의’인 셈이다. 심지어 WTO 내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 기능은 2019년 12월 11일 정지됐다. 총 7인의 상소 기구 상임위원 중 6인의 위원이 퇴임했지만 후임 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기능이 마비됐다.

한·미 FTA 효용 기대 못하게 돼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로 세계 교역 시스템은 만신창이가 됐다. 기존의 무역 질서도 흔들리고 있다. 향후 달라질 질서와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고민해야 할 때다.

첫째 미·중 패권 전쟁으로 WTO는 대수술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통상

정책 주권 수호라는 측면에서 현 WTO 체제가 중국과 같은 거대 개도국에 혜택을 주는 처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미국의 참여가 지속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WTO 체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WTO가 수호하는 자유무역은 한국 경제 번영의 조건이다.

둘째, 미국과 추진한 각국의 FTA는 당분간 그 효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다만 USMCA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상호관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일본과 EU, 중국 등은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를 더해야 하는 만큼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이익인 측면이 있다. 미국은 양자 FTA보다는 자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투자 장벽 개선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각자도생으로, 때로는 뜻 맞는 국가와 연합전선을 구축해 생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와의 FTA는 여전히 유효하다.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은 계속되어야 한다.

조선·SMR, LNG 수입 패키지 활용해야

셋째, 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세계 곳곳에서 자국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투자·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산업 정책이 주류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우리 역시 동조할 수밖에 없다. 세계는 ‘규범’과 ‘안보’를 내세워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국외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해주는 정책에 한창이다. ‘한국형 경제 안보’ 개념을 설정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넷째,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무엇을 진정으로 교정하기를 원하는지 제대로 소통해 접점을 찾아 상호관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 한·미 FTA 체결국임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 분야와 소형원자로(SMR) 협력, LNG 수입도 전략 패키지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 교역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100년 전의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미국의 관세 전쟁은 실패할 확률이 더 높고 제조업 부활을 이루기도 어려운 듯한 데다 미국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무기로 제조업을 휩쓸게 놔두는 것도 옳지 않다. 당분간 세계 교역의 축소와 경제 성장 하락은 불가피하고 우리가 받는 타격도 상당할 것이다.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규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정설침구혈위대전**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규한방병원 방영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1. 웃은 하이, 프로스틴밀 2025 새상금 \$1,450,000

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

2. 핸들리 하이 싱글 \$1,050,000

방 4, 화 3.5, 차고 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

3. 핸들리 하이 싱글 \$1,150,000

Rocky run middle, Polpa Tree Elementary, 최고 학교, 방 6, 화 3.5, 4,000sqft, 성당근처, 66/28/50/29

4. 센터빌 싱글 \$1,150,000

새집같은 모델하우스, 모던 디자인, 전부 리모델링, 방 6, 화 4.5, 차고 2, 울라 페넬, 6,228sqft

5. 센터빌 싱글, VIRGINIA RUN \$925,000

방 4, 화 4, (매인/폴베스), 차고 2, 3,2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9/28/66

6. Clifton 싱글 \$950,000

방 4, 화 3.5, 차고 2, 3,300sqft, 센터빌 하이 세입자형 전부 업그레이드, 새 주방, 새 HVAC

7. 맥클린 하이, 럭셔리 싱글 \$2,799,000

방 6, 화 6.5, 6,000sqft,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세입자형, 맥클린하이, 풀타임, 방 6, 화 6.5, 차고 2, 1123/123/Old Dominion Dr

8. 맥클린 하이 싱글 \$2,599,000

방 7, 화 7.5, 6,100sqft,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세입자형, 고품격 디자인, 맥클린하이, 풀타임, 방 7, 화 7.5, 차고 2, 1123/123/Old Dominion Dr

9. 페어팩스 중심 타운 \$825,000

방 3, 화 3.5, 3,000sqft, 236/66/29/50, GMU, 지하워킹아웃렛, 맥스

10. 핸들리 하이 타운 \$599,999

방 3, 화 3.5, 1,980sqft, 맥, 워킹아웃 지하 (방, 풀베스), 50/286

11. 게인스빌 골프 싱글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메나사스 골프 커뮤니티 싱글, 방 4, 화 4.5, 차고 2, 4,433 sqft, 2004, 0.3acre, 페리오, 스크린

12. 맥클린 콘도 \$485,000

방 3, 화 3.5, 1,100sqft, 차고 1,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세입자형, 맥클린하이, 풀타임, 방 3, 화 3.5, 차고 1, 1,100sqft

13. 게인스빌 콘도 \$425,000

Open House 4/13(SUN) 2-4pm @7168 Little Thames Drive, Gainesville, VA 20155 방 3, 화 3.5, 차고 1, 1,778sqft, R29, R1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

14. 맥클린 하이 싱글 렌트 \$5,900

방 5, 화 3, 카프치 2, 펜스, 전부 모던리모델링, 6/11입주, 메트로 인근

15. 매매/리스

*센터빌 중심 상업용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게인스빌 상업용 미장원 렌트 \$3,300/m, 1300sqft, 29/66, 7-11점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우리말 바꾸기

‘하던지 말든지’는 없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유튜브는 영상과 음성을 주로 하지만 자막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성이 있더라도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자막을 짚어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자막을 보면서 특히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 바로 “하던지 말든지” 형태의 표기다. “하든지 말든지”가 맞는 표현이지만 제대로 적힌 자막을 보기 어려울 정도다. 맞춤법의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틀리고 있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였다.

과거 우리말바꾸기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게재하게 됐다. 간단하다. ‘듣지’는 선택, ‘던지’는 과거다. ‘듣지’는 “사과든지 배든지 아무 것이나 좋다” 등처럼 쓰인다. 따라서 “하던지 말든지”는 내용상 선택을 나타내므로 “하든지 말든지”로 고쳐야 한다. ‘듣지’는 “얼마나 술을 먹었던지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와 같이 과거를 뜻할 때 사용된다. ‘듣가/던가’도 마찬가지다. “가듣가 말듣가 마음대로 해라”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에서처럼 ‘듣가’는 선택, ‘던가’는 과거를 의미한다. 준말로 ‘듣’과 ‘던’도 쓰인다. “사과든 배든 아무 것이나 좋다”에서의 ‘듣’은 ‘듣지’, “선생님께서 기뻐하시던?”에서의 ‘던’은 ‘던가’의 준말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칼럼

트럼프의 ‘북 핵보유’ 발언은 계산된 유인책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America First’, ‘Peace thru Strength’, ‘Make America Great Again’, ‘Golden Age of America’ 등을 외쳤다. 즉 ‘미국 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의 황금시대’ 등을 외친 것이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 구호들을 외치고 있다.

이를 두고 혹자들은 그가 국익을 추구하는 실익 외교만을 펼치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 외교’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했고, 미국이 유일 패권국 지위를 내려놓고 세계 경찰 또는 국제질서의 관리자 역할을 포기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예상일 것이다. 지금까지 그의 언행을 종합하면,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 힘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겠지만 대상이나 방법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를 포함한 동맹국들이 더 많은 안보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전을 부쩍 강조했다. 그는 그린랜드를 매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다시 찾겠다고 했으며,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의 생존을 중시하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이란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그가 추구하는 세계전략의 방향성이 분명해 보인다. 즉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선도하는 역할을 계속하겠지만 부담은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며, 전략의 비중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시켜 중국 견제에 더 많은 힘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북한도 이런 변화를 정확하게 유념해야 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고, 2월 2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서는 조기 종전을 강하게 압박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린랜드는 북쪽의 방어선이자 북극해 시대에 대비하는 요충지인데, 중국이 북극해에서의 기득권을 선점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건설한 운하이며 군사적·경제적으로 미국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해상교통로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소재 중국계 회사가 운하의 양단 지역을 관리하는 현실에 불만을 토로했으며, 이를 알아챈 파나마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서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지난 3월 4일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다. 그는 연설을 통해 먼저 강력한 미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불균형 등 관세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했으며, 미국의 추진력과 정신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강한 미군과 강력한 해군력의 건설, 한국 및 일본과의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추진 등도 언급했다. “파나마 운하를 중국에 넘겨주지 않고 파나마에 넘겨주었는데 곧 되찾게 될 것”이라

고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조만간 북한에 대해서도 핵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반문들이 나왔지만,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북한은 그해야 한다. 그의 발언은 북핵의 존재를 인지한다는 것이지, 공인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핵국으로 공인받는다 것은 핵보유 상태에서 경제적 외교적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북한은 국제사회가 핵보유를 공인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으며, 안보불안을 야기한다는 의미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부르는 학자들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 러, 북 3국이 군사적으로 밀착한 상태에서 북한이 핵무력 증강을 계속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이를 대화로 해결해 볼 수 있을지를 타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핵대화가 재개된다고 해서 핵보유를 공인받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되며, 그보다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대화에 임하여 핵포기 또는 핵위협 저감을 통해 북한인민들에게 필요한 반대 급부를 추구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과거 미북 대화나 6자회담처럼 앞으로는 대화를 하면서 뒤로는 핵무력 고도화를 계속하는 이중전략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미북 핵대화가 재개되어 북핵 위협이 감축된다면 한국도 싫어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열린광장

폭삭 속았수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같은 답이었다. 1학년을 잘 가르쳐 주셨던 중년의 여자 선생님은 2학년이 되자, 나를 불렀다. 1학년 때는 없던 반장이라는 제도가 2학년년부터 생겼단다. “선생님이 너를 반장으로 임명할테니 어머니께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려라.”

세 번 정도 나를 불러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실제로 반장을 임명하는 날, 선생님은 다른 아이를 반장으로 임명했다. 나는 반장도 부반장도 아니었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이야기를 하자, 남편 없이 혼자 호텔에서 매일 청소를 하셨던 어머니께서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상담을 하시더니 다음 날 학교로 찾아가셨다. 선생님은 존치를 기대했던 것인데, 어머니가 알아듣지 못하셨던 것이다.

어머니께서 봉투를 들고 학교에 다녀가신 후에, 선생님은 ‘회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나를 임

명하셨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반장보다 회장이 더 높은 자리란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선생님을 찾아 가셨고 2학기에 나는 회장보다 낮은 ‘반장’이 된다.

중학교 1학년 담임은 영어선생님이셨다. 그분에게 배운 영어문장 하나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 “What is the matter with you?”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물어보는 문장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너 무슨 문제 있니?,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뜻이란다. 얼마 후 백인남자 한 명이 지하철역에서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다. 배운 걸 써먹고 싶어서 달려갔다. “What is the matter with you?”라고 물었다. 백인은 나에게 한동안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신촌’을 외치는 것으로 보아 신촌역으로 가는 표를 사고 싶어하

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표를 사도록 도와줬지만 그에게 고맙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이 말이 “너 도대체 왜 그래? 정신이 있는거야?” 정도로 상대방을 질책할 때 쓰이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일이다.

이 분은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자 입학성적순으로 반장 부반장을 임명했다고 하셨다. 부반장이 된 나는 몇일 후에 입학성적이 8등인 학생이 반장이 된 사실을 알고 선생님에게 따졌다. 선생님은 임명장이 이미 인쇄된 후이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하니, 나더러 반장으로 임명된 친구와 1주일씩 번갈아서 차려 경례를 하라고 하셨다. 가난과 존치 때문에 ‘폭삭’ 속았던 어린 시절이다.

손헌수 변호사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전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속성반**

부동산 학교

수업료: \$250 (교재비: \$100) **시작이 중요합니다.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88기 4월 15일 (화)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쪽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기본 컴퓨터 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웨어하우스/오피스
\$3,500,000

- 건물: 8500 sqft
- 대지: 0.87 에이커
- 조닝: Heavy Industrial, 각종 자동차 관련 비즈니스 가능, 건물 증축 가능, 건물 뒷편 공터를 매달 \$7,500 받고 있음.
- 건물 렌트 가격: \$8,000
- 95번에서 3분 거리, IKEA에서 1분 거리

SOLD



3/15 오후 1시~4시
26977 Crusher Dr. Chantilly, VA 20152

\$1,500,000

6600 sqft의 고급집, 모델홈, 집 뒷편으로 아주 넓은 호수, 모델홈보다 더 모델 홈 같은 집

SOLD



3/15 오후 10시~12시
7703 Lafayette Forest Dr. #22, Annandale, VA 22003

\$369,900

애넌데일에 있는 고급 콘도, 방2, 화장실2 집 전체 완전히 다 새것으로 수리

버지니아

<p>1</p> <p>\$770,000 센터빌 싱글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 넓은 뒷뜰</p>	<p>2</p> <p>\$795,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편리한 교통, 좋은 학교, 집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p>	<p>3</p> <p>\$850,000 버크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최근에 업그레이드한 부엌과 아주 잘 가꾸어진 집</p>
<p>4</p> <p>\$875,000 센터빌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바닥, 벽돌 집</p>	<p>5</p> <p>\$1,005,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차고 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한 집, 넓고 고급스러운 집</p>	<p>6</p> <p>\$1,200,000 비엔나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골집, 벽돌집, 5년된 아주 이쁘고 고급스러운 집</p>
<p>7</p> <p>\$2,290,000 폴스처치 새 싱글 방 6, 화장실 6+1, 차고 2, 4천 sqft가 넘는 넓고 모던한 새 집, McLean HS</p>	<p>8</p> <p>\$2,400,000 비엔나 새 싱글 방 5, 화장실 5+1, 차고 2, 모던한 새 집. 4200sqft, Madison HS</p>	<p>9</p> <p>\$2,600,000 맥클린 싱글 방 6, 화장실 7+1, 차고 2, 5500sqft. 모던한 새 집, McLean HS</p>
<p>10</p> <p>\$565,000 알렉산드리아 싱글 방 4, 화장실 3, 지붕부터 에어컨까지 전부 다 새로 수리한 집</p>	<p>11</p> <p>\$200,000 버크 콘도 방 2, 화장실 1, 너무 좋은 가격,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p>	<p>12</p> <p>\$899,000 페어팩스 싱글 방 6, 화장실 4, 차고 1, 전체적으로 다 수리한 멋진 싱글 홈, 우드슨 고등학교</p>
<p>13</p> <p>\$470,000 우드브릿지 콘도 방 2, 화장실 2, 차고 2, 벨몬테에 있는 고급 콘도, 선착장 옆</p>	<p>14</p> <p>\$78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화장실 4+1, 차고 1 4층 구조로 되어있는 멋진 타운홈</p>	<p>15</p> <p>\$789,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3, 화장실 2+1, 차고 2 모던하게 잘 꾸며진 멋진 타운 홈, 마루바닥</p>

메릴랜드

<p>1</p> <p>\$720,000 저먼타운 싱글홈 방 6, 화장실 4, 차고 2 최근에 업그레이드한 부엌, 넓고 고급스러운 집, 좋은 가격</p>	<p>2</p> <p>\$850,000 다마스커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넓고 환한 아주 잘 가꾸어진 고급 집,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p>
<p>3</p> <p>\$950,000 클락스버그 싱글홈 방 4, 화장실 4+1, 차고 2 18년된 벽돌집, 새집같이 잘 가꾸어진 집</p>	<p>4</p> <p>\$975,000 N. 포토맥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차고 2 아주 좋은 환경에 고급 주택, 좋은 학교</p>
<p>5</p> <p>\$89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3, 차고 2</p>	<p>6</p> <p>\$680,000 케이더스버그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전체적으로 업데이트 한 이쁜 집</p>
<p>7</p> <p>\$1,110,000 베데스다 싱글홈 방 5, 화장실 3, 차고 1, 최근에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 한 멋진 싱글 홈</p>	<p>8</p> <p>\$765,000 엘리컷시티 싱글홈 방 5, 화장실 3, 차고 2, 센티널 HS.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한 이쁜 집</p>
<p>9</p> <p>\$879,000 메리얏츠빌 싱글홈 55+, 방 3, 화장실 3 잘 안나오는 집, 골집, 3800sqft가 넘는 넓은 집</p>	<p>10</p> <p>\$450,000 엘리컷시티 타운홈 방 3, 화장실 2+1, 차고 1 편리한 교통에 컨디션 좋은 타운홈</p>

DC

<p>1</p> <p>\$640,000 워싱턴 디씨 NW 콘도 방 2, 화장실 2, 차고 1 좋은 환경에 있는 고급 콘도, 메트로 근처</p>
<p>2</p> <p>\$1,100,000 워싱턴 디씨 NW 콘도 방 2, 화장실 2, 차고 1 전통적인 양식의 고급 콘도, 고급 동네에 위치</p>
<p>3</p> <p>\$980,000 워싱턴 디씨 NE 타운홈 방 3, 화장실 2+1 최근에 새로 지어진 고급 타운 하우스</p>
<p>4</p> <p>\$2,500,000 워싱턴 디씨 NW 싱글홈 방 5, 화장실 5+1, American 대학 근처에 아주 고급 동네에 새 집, 3050 sqft의 넓은 집</p>
<p>5</p> <p>\$1,250,000 워싱턴 디씨 NW 싱글홈 방 5, 화장실 3+2, 차고 2 체비체시 바로 옆, 고급 동네, 좋은 가격</p>

뉴스타부동산

VA 703-496-4989
MD 410-618-4989

8230 Leesburg Pike, Suite 650,
Tysons Corner, VA 22182
3444 Ellicott Center Dr. #105,
Ellicott City, MD 21043 롯데위 우체국 맞은편



내집 가격이 궁금하다?
캘러 사진으로 만들어진
집감정 리포트를 신청하세요.
1-800-406-4989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이동범
건축사

Q 오피스 건물을 아파트로 변경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

▶문= 오피스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아파트로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최근 오피스 건물의 공실률이 올라가면서 아파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LA시는 아파트 전환이 쉽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빌딩 코드도 장애인 규정을 완화해 주는 등 행정적인 면에서도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건물을 개조하는 것이고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이다 보니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 문제 중 프로젝트 초기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현재의 법규에 맞게 구조 보강을 해야 합니다. 사무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은 건물 구조 계산에 사용하는 하중의 값이 틀리고, 충분한 자연광과 환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창문의 크기나 배치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조 보강은 아파트 개조 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건축가와 함께 구조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 개략적으로 구조 보강의 정도를 가능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프로젝트 비용을 예상할 수 있어서 후에 공사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사무실보다 화장실이나 주방 시설이 더 많이 설치되므로 배관설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각 유닛마다 수도, 하수, 전기 배선을 설치하는 비용과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난방, 냉방 시스템도 주거용으로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건물은 주거건물보다 방음 면에서 낮은 수준으로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파트 개조 시 방음/차음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적인

유닛 간 소음방지 및 층간 소음방지 외에도 공조덕트, 엘리베이터, 외부 소음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주차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을 해야 하고 휴게시설/엘리베이터/쓰레기 처리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주거 용도에 맞춰야 합니다. 또한 건물 출입관리 시스템/주차장 관리 시스템/home automation 시스템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면 마케팅의 기회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로젝트의 진행에서 초기에 이런 이슈들에 대해 고려를 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시키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아주 중요합니다.



마크 정
엔제이보험 대표

Q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SEP IRA

▶문=저는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세금보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SEP IRA를 가입하면 세금 절감을 크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까지 불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액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효과적인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특히, 직원이 적거나 가족 중심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SEP IRA는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면서도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SEP IRA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불입 한도와 세금 공제 혜택입니다. 사업주가 불입하는 금액은 전액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매년 사업의 수익에 따라 불입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 유동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설정과 운영이 비교적 간단하여 관리 비용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SEP IRA의 연간 불입 한도는 두 가지 기준 중 더 작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첫째는 25% 룰에 따라 사업주 및 직원의

급여의 25%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둘째는 연간 최대한도로 2024년 기준 69000 달러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때 둘 중 더 낮은 금액이 최종 불입 한도가 됩니다.

SEP IRA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비율로 불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자신의 급여의 25%를 불입했다면, 직원들의 급여도 동일한 25% 비율로 반드시 불입해야 합니다.

SEP IRA의 불입 기간은 세금보고기한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개인은 퇴계좌는 반드시 4월 15일 이전에 불입해야

하지만 SEP IRA는 10월 15일로 세금보고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불입도 연장된 기한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이 한 명 이상인 모든 사업주는 칼세이퍼스(CalSavers)라는 직장 퇴직 저축플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401(k)나 SEP IRA, SIMPLE IRA 등 적격 퇴직 연금 플랜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면 칼세이퍼스 등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보연
재정 보험 전문가

Q 사망보장에서 평생소득으로, 진화하는 생명보험 활용법

▶문=저축성 생명보험으로 은퇴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으로 은퇴자금을 쓸 수 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그런 방법이 있는 건가요?

▶답=네, 요즘은 생명보험도 단순한 사망 보장만이 아니라, 은퇴 준비를 위한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 기능이 포함된 생명보험, 즉 '현금 가치(Cash Value)'가 쌓이는 보험의 경우, 이 금액을 은퇴 이후 생활비로 꺼내 쓸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됩니다.

예를 들어, 40대 초반에 가입한 고객 이 매달 일정 금액을 20여 년간 저축성 생명보험에 납입했다면, 60세 무렵에는 보험 안에 수익이 쌓여 수십만 달러의 현금 가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자산은 보험사로부터 Policy Loan의 형태로 인출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인출 방식이 대출 형식이다 보니 매번 신청이 필요하고, 인출 속도를 잘못 조절하면 나중에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Lifetime Income Benefit Rider'(평생소득 보장 특약)를 포함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약은 일정 기간 납입을 마친 후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보험사가 정해진 소득 지급률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동안 자동으로 지급해 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안에 \$200,000이 쌓여 있고 지급률이 6% 라면, 매년 \$12000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되는 겁

니다.

이 지금은 보험 안의 수익률에 상관없이 평생 보장되며, 자금이 다 소진되더라도 살아생전에는 계속 지급됩니다.

이처럼 저축성 생명보험은 제대로 설계만 된다면, 은퇴 후 세금 부담 없이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재정 상황이나 기대수명, 보장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상품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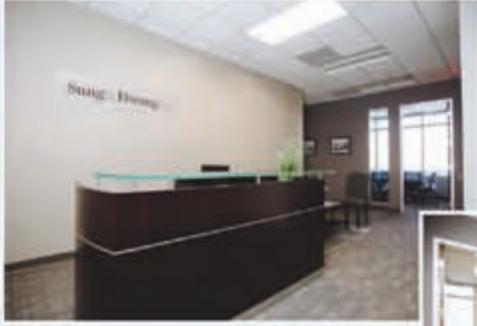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MD, DC, V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Baker Botts, LLP
NY, MD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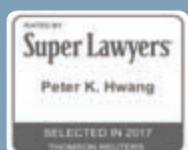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 Clemson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Baltimore School of Law, JD

약력
Eccleston & Wolf
MD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경제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Monday, April 7, 2025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한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평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t.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관세 폭탄’ 한인 비즈니스 대책 마련 부심

자동차·식품 가격인상 예상
일부 의류업체 “폐업 고민도”
대형업체보다 소상공인 타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업군에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다. 한국산 수입품에는 25%의 관세가 붙어 한인업체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한인 업체들이 ‘생산지’로 활용해 왔던 중국(34%), 베트남(46%), 캄보디아(49%)도 관세 대상국기에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자동차
자동차는 이미 품목별 관세대상으로 지정돼 관세가 3일 시행됐다.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는 25% 관세가 부과되며 일부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가 붙는다. 자동차 판매업체 쪽에서는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곧 수천 달러의 가격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에덴자동차의 제이 장 부사장에 따르면 지난 2일 BMW 딜러십 측에서 신차 계약 중 기습적으로 1000달러 가격 인상을 시행한 경우도 있었다. 고객은 차량 구매를 취소했다고 한다. 장 부사장은 “차량 가격 변동은 빠르면 2주 안에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류
한인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의류업체는 의류를 아시아 지역의 공장에서 생산 후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군 중 하나다. 리처드 조 전 한인의류협회장은 “국내에



최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던 한국산 식품 대미수출도 상호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켓에 진열된 한국산 식품. 김상진 기자

서 생산해도 원단 등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어 관세는 피해갈 수 없는 약제”라며 “향후 의류 가격은 무조건 오를 것이지만 이미 의류업체가 경기둔화 때문에 매출 하락세를 겪고 있어 선불리 가격 인상을 하는 것도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 의류업체 관계자는 “의류 수입을 주로 하던 업체들은 아예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화장품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K뷰티 화장품 또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인기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은 이달 중순부터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고지해왔다고 한다. 다만 인상 폭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로데오 화장품의 허보영 매니저는 “최근 경기가 안 좋아서 소비가 줄어들었고 관세 때문에 가격까지 오르면 판매가 더

욱 줄어들 것 같다”며 “20~30%의 가격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
지난해 한국농수산물 대미수출액이 13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한 수치다.

한인 식품 유통업체와 마켓 업체는 이번 상호관세로 K푸드 식품 대미 수출가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식품업체에 따르면 재고 물량이 2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남아 있어 당장 한인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한국산 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된 멕시코·캐나다 관세로 인해 전반적인 식품 물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전반
상공인 단체는 관세가 한인 비즈니스 커뮤니티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

다고 입을 모았다. LA한인상공회의소(LA상의)의 정동완 회장은 “인벤토리를 많이 비축해 놓은 큰 사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받는 피해는 무척 클 것”이라며 “많은 상공인이 적용 범위나 관세율에 대해 확신이 없어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옥타LA)의 정병호 회장은 “한인 업체들은 규모가 크지 않아서 관세를 고려해 제조수입국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며 “트럼프 1기 때 중국 관세 상승으로 제조를 베트남 등으로 옮겼지만 이번 관세는 옮긴 국가에도 적용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옥타LA 측은 상호관세 상세한 내용과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실질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8일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원희·우훈식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 와이스틴 & 손 로펌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 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노승훈 Robinson S. Rown 전직 검사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e@rowepllc.com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Top 100 법정변호사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www.rowepllc.com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FAX 301-770-4711
Mrs. Lee 사무장 한국인 505 703-887-1037 lee@rowepllc.com

프로그램? AI 시킬게... 개발자 일자리 27% 증발

충격적인 '2년 통계'

WSJ "AI가 IT 실업률 증가에 영향" 한국, 통계 없지만 현장 사례 많아 "생산성 오른 기업, 일자리 늘리기도" 일부선 'AI의 고용 선순환' 강조

"꽤맨(1980년에 발행된 초기 컴퓨터 게임) 때만큼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적어졌다."

미국의 유력 언론 포춘지와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의 컴퓨터 개발자 고용이 미국고용통계국(BLS) 조사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27.5% 사라져 198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이렇게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젠코 어소시에이츠에서 미국 노동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IT 부문 실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5.7%



로 4% 넘게 상승한 건 인공지능(AI) 기술이 IT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공식 일자리 통계에서 AI 발(發)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것이다.

“저숙련 화이트칼라(사무직)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컨설팅 회사 젠코 어소시에이츠의 CEO 빅터 야누아이티스는 “더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작업에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일부 기업은 AI가 수행하도록 해 비용 절감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27.5% 사라졌지만 더 광범위한 일을 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 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0.3% 떨어지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고숙련 노동자들은 AI 일자리 감소 영향이 적었다는 의미다.

한국은 어떻게? 고용통계 전문가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국내 IT 인력 통계는 9개월 시차를 두고 발표되기 때문에 아직 수치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다만, 현장 특히 금융권 등에서 AI를 도입해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례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권에서는 콜센터에 AI를 도입하면서 빠르게 상담 인력을 축소하고 있다. 한 국내 운용업계 관계자는 “지나해 자라 백업을 도와 줄 리서치어시스턴트(RA)를 뽑아준다고 했는데, 챗 GPT나 퍼플렉시티 구독 지원으로 충분히 거절했다”며 “기업 컨퍼런스콜이나 경제데이터 정리는 AI가 오히려 더 잘한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사회적 대화를 보이콧하고 있는 노조 측이 유일하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회의가 올해 1월 출범한 ‘AI와 노동연구회’다.

연구회 좌장을 맡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다임리시치는 무인공

장을 만들고 있고, 현대차 미국 공장은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다. 동원산업은 자체 AI 서비스를 개발해 직무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며 “참석자들 공통 반응이 ‘AI 현장 적용 속도가 너무 빠르다’다. 개인적으로 이대로 라면 ‘화이트칼라 불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부정적 연구와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AI와 노동연구회에 참석한 조정철 LS일렉트릭 부장은 “생산성이 올라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된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는 선순환도 있다”며 “LS일렉트릭 창주 사업장은 AI 도입 후 라인이 10개에서 40개로 증가해 일자리가 늘었다”고 소개했다.

세계경제포럼(WEF)도 올해 1월 보고서에서 AI로 인해 5년간 9200만개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1억7000만개 생겨 오히려 일자리가 순증한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윤리 전문가, 데이터 검증 전문가 등 AI를 활용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전망이다.

김연주 기자

트럼프 관세, 미국도 금융위기급 충격

GDP 4% ↓, 물가 2.5% ↑ 전문가 “고관세로 성장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무역시스템이 해체 위험에 빠지고 미국도 금융위기급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총생산(GDP)은 4% 감소하고 물가는 향후 2~3년간 2.5% 가까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이 국내 경기 침체와 세계적인 경기 둔화, 그리고 전후 질서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미국 관세를 적용받는 나라들뿐 아니라 미국도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트럼프 관세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1930년대 약명났던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법 당시보다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했다.

1929년 보호무역주의자인 리드 스무



지난 2월 13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관세 인상에 관한 행정명령을 설명하고 있다.

트 상원의원과 윌리스 홀리 하원의원이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고 발의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대공황을 악화시켜 이후 자유무역 질서에 균열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반면교사로 언급되곤 하는 사례다.

다트머스대의 경제사학자 더글러스 어윈은 “스무트-홀리법 때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0년대 초반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은 GDP의 14%로, 1930년 당시의 약 3배에 달한다.

경제분석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도 트럼프 관세가 최대치로 부과될 경우 평균 관세율은 최대 28% 포인트 상

승해 GDP에 4%의 타격을 입힐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대략 1조 달러의 생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펜실베이니아주 전체 GDP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규모다.

경제 규모가 이전 추세보다 6% 위축됐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충격일 것으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평가했다. 이번 관세는 또 향후 2~3년 동안 물가를 2.5% 가까이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비관세 장벽에 불만을 터뜨린 바 있어 이들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해당국의 GDP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에 캐나다와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더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측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전망은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지만,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중단과 소비 감소 등 간접적 영향까지는 계산하지 못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여러 나라가 높은 관세 장벽 아래에서 성장하려고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면서 “보호주의는 좋은 전략이 아니며,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국가 간 경제발전 차이를 가져온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다론 아제모글루 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함께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바 있다.

각국 지도자들의 경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유럽연합(EU) 지도자들에게 미국이 세계를 파괴적인 경제 갈등으로 몰아넣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집 철저하게 잘 봐드립니다. 믿고 맡겨보시면 아십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맥클린지역, 비엔나 지역 고급 주택 전문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베데스타, 락빌 고급 주택 전문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한국 기업 미국 진출시,
미국주정부에서 제공하는 Investment incentive process, IRA 법안 관련과 New market tax credit 도와 드립니다.
미국 시장 진출전 지역 정하기 전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 한국 기업 전문 •

승경호 추천 매물

<p>창고 VA 리즈버그 데타멘타주변 창고 3500 SF, 로딩당 17개, 월 \$6,500</p>	<p>아파트 투자 월 \$6,350 수입 버지니아 알링턴 유닛3개, \$1,200,000</p>	<p>상가 임대수입 버지니아주 비엔나, 상가 8백만불 연수수의 52만불, 8백만불</p>
<p>식당했던 빈자리 메릴랜드 락빌 좋은 조건의 식당했던 빈자리, 3800 SF</p>	<p>월 \$11,350 수입 버지니아 알링턴 유닛5개, 주차5개 \$2,625,000</p>	<p>메릴랜드주 발티모어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p>

(세금, 보험, 관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국 전역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디씨
용도부터 시설, 설비, 기업 컨설팅 모두 도와드립니다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관세 정책을 발표한 지난 2일 메릴랜드 볼티모어 항구 부두에 선적될 완성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관세 폭탄’에 신차 가격 수천불 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자동차 및 부품 수입에 대한 25% 관세가 시행되면, 미국 내 신차 구매자들은 큰 폭의 가격 인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부과하는 자동차 및 소형 트럭에 대한 관세는 4월 3일부터, 엔진과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5월 3일 이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의존하는 주요 기업들의 공급망에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년 미국에서 판매된 약 1600만 대의 자동차, SUV, 소형트럭 중 절반가량은 수입차였으며, 이들 차량은 멕시코, 일본, 한국, 캐나다,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됐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는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가격을 올리거나 수익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 이유로 국가 안보 강화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세우도록 압박함으로써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성명



캐나다 온타리오 캠브리지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 출고를 기다리는 신차들이 주차돼 있다.

차 3일부터, 부품 5월3일 이전 25% 관세 부과
일반차 4000~1만불, 전기차 1만2000불 인상

을 통해 “미국은 단순한 해외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안보와 경제 이익에 중요한 산업의 모든 공급망 단계를 지배하는 제조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악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자동차 공급망을 붕괴시키면서 차량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표 당시 “이제 기업이나 심지어 나라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가격이 결국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내 공장 건설은 수년이 걸리는 장기 과제이고, 일부 기업

들은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으로의 공급망 이전에 주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한 과거에도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해 온 전례에 따라, 이번 조치도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 수단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의 이코노미스트 일란 게킬은 “관세로 이득을 보는 이는 없으며,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다만 손해의 크기가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가격 얼마나 오를까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전분

자들은 신차 가격이 수천 달러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에서 제조된 차량이라도, 수입 부품이 포함되면 관세 적용 대상이 된다.

폭스 오토모티브의 수석 애널리스트 에린 키팅은 관세 대상 차량의 경우 가격이 15~20% 인상될 수 있으며,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차량도 약 5%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고가 차량과의 경쟁이 생기면, 시장은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중고차 가격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잔디는 차량 1대당 가격이 5000~1만 달러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은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 관세 발표 직후인 2월, 일반 차량은 4000~1만 달러, 전기차는 최소 1만2000달러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어떤 자동차 브랜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까

유럽과 아시아에서 제조된 차량이 미국산보다 관세 타격이 클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수입 부품 의존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테슬라(Tesla)는 차량을 미국에서 생산하지만, 일부 부품은 해외에서 수입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는 “테슬라도 관세의 영향을 피

하지 못한다”며 “그 충격은 여전히 상당하다”고 밝혔다.

도요타(Toyota), 폭스바겐(Volkswagen), 현대(Hyundai), 제너럴모터스(GM) 등은 미국과 해외에서 모두 생산하고 있다. GM CEO 메리 바라는 1월 실적 발표에서 “GM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트럭을 생산한다”며 “공급망과 조립 공장 전반에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엘라베마와 조지아 공장에서 연간 120만 대 생산 규모로 미국 내 생산을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딜러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차량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루면 딜러 판매량도 감소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토른스에 있는 볼보(Volvo) 딜러의 영업 매니저 주리 클라릭은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인근의 마틴 쉐보레(Martin Chevrolet) 딜러 매니저 스텔라 몬테로소는 “고객들이 가격 인상 전에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바쁜 주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품이 워낙 여러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물류망이 매우 복잡하다”며 관세가 실제 판매에 미칠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키위영, 샌더 맥도널드

월가, 경기침체 진입 경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경기침체에 진입할 위험이 커졌다는 경고가 월가에서 나

오고 있다. 지난 3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날 투자자 노트에서 상호관세가 올해 인플레이션을 1.5%포인트 올릴 수 있지만 개인소득과 소비

지출을 억누를 수 있다며 “이 효과만으로도 미국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침체에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의 평균 실효세율이 23% 이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같은 관세율은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했던 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 시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UBS의 조너선 핑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상호관세 여파로 국내 경제가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

는 기술적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핑글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확장세는 이미 둔화하고 있었고, 소비 강도도 축소되고 있었다”며 상호관세 발표 이전에 이미 국내 경제에 대한 신뢰가 악화 징후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주식 투자, 기회가 왔다!

지금 연락 하세요

AI, 로봇틱스, 기술 혁신주들을 놓치지 마세요

경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술주들이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 종목 분석을 전문가들에게 맡기세요. 더 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성장시킵니다.

HCM 자산운용사 분석 종목

- AI 인공지능 관련주들
- 트럼프 임기에 받을 수혜주들
- 그 외 10배 상승할 수 있을 기술주 종목들

에드워드 하 (HCM Founder)
-FDIC 연방정부 은행관리 기관 경력
-10년 이상 채권, 주식, 외환 거래 경력
-조지메이슨대 정치/경영 경제학 석사

케빈 맥케이브 (Advisor)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경제학 박사
-조지메이슨대 행동경제학 교수

HAAHS CAPITAL MANAGEMENT HAAHS CAPITAL MANAGEMENT T.703-346-6767

상법



이승호 변호사 Lee & Oh

공익 소송

웹사이트 장애인 접근성 보호해야 판례법은 있지만 가이드라인 없어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장애인 관련한 공익소송은 매우 해결하기가 난처한 법률문제다. 공익소송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한 장애인이 근처 상권을 돌면서 마구잡이로 소송하는 일도 있다. 더구나 이런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로펌들은 공익의 목적보다는 합의금에만 집중하고 실제 문제 사항에 대한 처리는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물리적인 건물과 부동산의 접근에 대한 소송 뿐 아니라 웹사이트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 한 통계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되는 장애인 관련 소송 중 35%가 웹사이트에 관한 소송이라고 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법에 근거한다. 식당이나 소매점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 접근성을 위한 법을 위반했을 때 공익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법의 의지는 장애인의 공공 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인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졌고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오너에게는 부담이 큰 소송이다.

1990년에 장애인들이 공공 장소에서 접근

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장애인법 소송은 지난 10여년 전부터 법의 적용대상이 사이버 공간으로도 확대되었다.

즉 수많은 정보가 있는 인터넷에서도 공공의 목적을 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시각장애자와 청각장애자도 접근의 제약이 있을 경우 장애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웹사이트의 접근성에 대한 법은 판례법으로 발전되어 왔고 캘리포니아가 속한 제9 회소 법원에서는 장애인법이 웹사이트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 2019년에 나오면서 이제는 웹사이트도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 다만 아직도 논란인 것은 웹사이트 제작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 홍보 혹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웹사이트를 상대로 하는 장애인 소송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것은 분명하다.

결국은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시각·청각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법은 존재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없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비즈니스 입장에서 법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결국 의회에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법제화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엄기욱 CPA·Mountain LLP

1099 양식

과세원 포착하기 위해 수 년간 양식 확대해와 2024년부터 앱 통한 소득 5천불 이상 보고해야

1099 양식이란, A라는 개인이 B라는 업체와 독립계약자 거래를 체결한 후 당해에 대가를 지급받았을 경우 발급된다.

대가를 지급한 B업체가 당해에 개인 A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국세청(IRS)과 소득을 지급받는 A에게 동시에 보내 소득이 누락 되지 않도록 보고하는 세금 보고 양식이다.

실제로 세금보고 시에 일 년 동안에 발생한 비용을 정리하다 보면 회사 관계자나 거래하는 사업체 이외의 개인에게 소액이라도 실제로 비용이 지급된 경우가 많이 있다.

회계감사를 받다 보면 감사관들의 가장 많이 살펴보는 내용이, 세금보고서에서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 중 개인 명의로 발행한 지급액이 급여세를 납부한 비용인지 혹은 독립 계약자들에게 지급한 컨트랙터 비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비용처리 여부를 따져 개인 명의로 지급된 비용이 600달러가 넘고 연말에 Form 1099-Misc 또는 1099-NEC를 발행한 경우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즉, 아무리 정당한 비용이라도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세금 보고 시에 소득을 누락시킬 근거가 되는 거래는 원천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편에서는 정당하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함이고, 반대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그 소득을 누락하지 않고 소득으로 보고하게 하여 과세원을 포착하겠다는 취지

이다.

또한 몇 해 전부터 계속 진행 중인 1099 양식의 확대 안은 이 근본 취지를 보다 확대하여 과세권을 넓히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로서 1099를 발행하는 대상이 개인에서 법인에게 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양식 1099-K는 위에서 설명한 1099의 한 예로서 연방 국세청 IRS는 이 양식을 통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비즈니스 업체의 매출을 카드회사로부터 보고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벤도, 페이팔, 캐쉬앱 등의 앱을 통한 거래는 크레딧 카드 매출과는 다르게 처리된다. 이전에는 최소 2만 달러 이상을 벌었거나 200건 이상의 거래가 있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만 1099-K 양식이 발행되었는데, 이 양식은 결제 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또는 기프트 카드 수입을 신고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IRS는 새로운 신고 기준을 도입하여 2024년부터는 앱을 통해 5000 달러 이상을 벌었다면, 본인과 IRS 모두 1099-K 양식을 받게 되었다.

2025년에는 2500달러 이상, 그리고 2026년에는 600달러 이상 수입을 보고 하도록 하였다. 유의할 점은 결제 앱을 통해 상품판매, 서비스 제공, 또는 부동산 임대료 등을 받았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IRS에 신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1099-K양식을 받았는지 여부는 신고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5억대 팔린 닌텐도 스위치, 8년 만에 새 모델 나온다

2017년 첫 공개, 콘솔 기기 최다 판매 마리오·포켓몬 등 독점 IP 게임 흥행 국내 발매가 65만원, 6월 출시 예정

닌텐도가 오는 6월 차세대 콘솔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2'(사진)를 글로벌 출시한다. 전 세계 1억5000만대 이상 팔린 전작만큼 흥행에 성공할지 관심을 모

는다.

닌텐도는 지난 2일 오후 10시 온라인 쇼케이스 행사인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스위치2 출시일을 6월 5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게임기와 함께 선보이는 런칭작으로는 레이싱 게임 '마리오카트 월드'가 선정됐다. 닌텐도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스위치2는 전작 대비 화면 크기가 6.2인치에서 7.9인치로 커졌

다. 두께는 13.9mm로 동일하다. 온라인에 연결해 지인들과 대화하고 얼굴을 보며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챗'을 도입하고, 조작기인 조이콘을 마우스처럼 쓸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을 추가했다. 국내 발매 가격은 64만8000원으로, 4만9980엔(약 50만원)인 일본 내수용보다 높은 수준이다.

스위치2는 전작 스위치 이후 8년만

에 나온 닌텐도의 새 콘솔 기기다. 2017년 선보인 스위치는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1억5000만대가 팔려 단종되지 않은 현역 콘솔 기기 가운데 가장 많이 팔렸다.

스위치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 등 경쟁사 콘솔 기기보다 그래픽 등 성능은 뒤쳐진다. 하지만 휴대용, 거치용

두 방식으로 모두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한 폼팩터(form factor-제품의 물리적 외형) 혁신을 내세워 게이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게임 IP(지식재산권)가 풍부한 점도 성공 원동력이었다.

기존 스위치 대비 하드웨어상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은 만큼 스위치2의 흥행은 신작 게임들이 좌우할 전망이다. 한국에선 일산 킨텍스에서 5월 31일부터 이틀간 체험회를 열 계획이다.

김민정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플러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달라진 기후와 불, 달라져야 할 인간

최근의 한국 산불처럼 초대형화하고 있는 임야화재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에서 진화와 통제가 어려운 대재앙이 되고 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식으로 파괴력이 강력해진 산불은 지구 온난화, 건조화 등 기후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의견을 같이한다.

『파이어 웨더』는 임야화재가 핵폭탄 급으로 진화하고 있는 아비규환의 현장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추적하고 정밀분석한 화제작이다. 저널리스트 존 베일런트가 지은 이 책은 캐나다 앨버타주 포트맥머리 화재 현장을 속속들이 파헤치면서 대형 임야화재의 특성과 문제점, 과제 등을 세밀하게 짚었다.

포트맥머리는 세계 석유 생산량 4위, 수출량 3위인 캐나다의 석유산업 중심지다. 2016년 4월 마지막 날 발화된 ‘맥머리 임야화재 009호’는 미증유의 기세로 확산해 이듬해 8월야야 극적으로 불길이 완전히 잡혔다. 불에 탄 임야는 59만6000ha로 의성, 산청 등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지난 3월 한국 산불 피해 면적의 12배에 달했다.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화석연료의 생산자인 포트맥머리가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일어난 거대 산불로 거주 시민들을 대거 몰아낸 비극의 현장이 된 것이다.

파이어 웨더(fire weather, 화재 기상)는 기온과 상대 습도, 숲의 연료 부하, 그 연료 부하 중 수분 비율의 동적인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다. 포트맥머리 소방서는 파이어 웨더의 위태로운 상황은 인지하면서도 불길이 방어진을 넘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돌풍과 이미 테워진 산소가 불길에

저널리스트가 쓴 『파이어 웨더』

임야화재 초대형화 심층 분석

철학자가 쓴 『숲이 불탈 때』

숲의 착취와 방임 고루 비판



파이어 웨더
존 베일런트 지음
제효영 옮김
공출판



숲이 불탈 때
조엘 자스크 지음
이채영 옮김
필로스픽

강력한 에너지를 더하자 불은 빼곡한 아한대림 숲으로 둘러싸인 강변의 비탈을 따라 언덕 꼭대기까지 훌쩍 치솟았다. 하층 제트가 공급하는 공기와 산소는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 위로 쏟아져 내렸다. 지역 전체가 거대한 컨베이션 오븐이 된 것이다. 아마겟돈이 실제로 오면 아마도 이리했을 것이다. 포트맥머리 주민들은 불가항력을 피부르느라 아나그노리시스(깨달음)의 순간을 맞았다.

아한대림에서 피어난 이런 불길을 잡을 수 있는 건 날씨 변화, 거대한 호수·바다뿐이다. 이 불과는 맞설 방법이 없고 시간도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 드러났다. 목표가 화재 진압에서 인명 구



2016년 봄 시작된 캐나다 포트맥머리 임야화재 당시 화염에 휩싸인 어베센드 지역의 모습. 이 화재는 이듬해 여름야야 완전히 진화됐다. [사진 공출판]

조로 바뀌는 이 전환은 미국 캘리포니아, 그리스, 호주, 포르투갈까지 21세기 도시 화재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기상학자들이 화재 적란운이라 부르는 소나기구름은 규모가 엄청 방대하다. 일산화탄소, 사이안화수소, 암모니아, 오염물질, 방대한 양의 탄소와 미립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높은 고도까지 전달하는 시스템이 된다. 성층권 하부에 도달하면 연기기동 내부의 에어로졸과 미립자들은 극지방에서 고속 컨베이어벨트처럼 이동하는 제트기류에 실려 전 세계로 운반될 수 있다. 과거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화재 적란운은 이제 포트맥머리 등 전 세계 어디서나 형

성되고 있다. 한 주민은 “포트맥머리에 핵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고 했다.

불을 다루는 기술과 화석연료로 지구 지배해 온 인류는 이제 불로 인해 종말론적 대재앙 같은 화재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에너지원인 탄화수소 자원 개발에 열을 올려온 인류는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불에 더 취약해진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책은 이 세상을 불타기에 적합한 기후로 바꿔 놓은 ‘호모 플라그란스(불 태우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리포트다. 불은 마음도 없고 영혼도 없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불타기 좋은 환경을 만

들지 않는 길뿐이라는 걸 이 책은 조용히 알려준다. 지은이는 기후는 급격히 변하는데 인간은 이에 맞춰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는 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숲이 불탈 때』의 저자인 프랑수아 철학자 조엘 자스크는 “한편에서는 단일림을 조성하는 등 숲을 철저히 착취하면서 기후 위기를 촉발시켰고, 다른 한편에서는 숲을 방임해 고목과 같이 타기 좋은 물질이 축적되는 데 일조해 지구는 전례 없이 불타기 좋은 상태가 됐다”며 “인간은 이제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자연과 적극적인 공생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한 자유기고자

진짜 ‘간첩’ 이 말하는 파란만장 첩보 실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간첩’을 입에 올리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중국 간첩이 한국의 선거에 관여했다”는 주장부터 “사상 최악의 영남권 산불은 중국 또는 간첩 소행”이라는 음모론까지 실체 없는 간첩 담론이 판돈다.

반면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지만 현재 재판 중인 간첩 혐의 사건들이 있다. 제주 ‘ㅎㅇㅎ’(‘한길회’)의 조성으로 추정,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 청주 ‘자주통일총북동지회’ 등이다. 가짜와 진짜 간첩 혐의를 구분해 실체를 밝히는 노력이 중요해진 이유다.

『남북 스파이 전쟁』은 그런 노력에 여러 시사점을 주는 책이다. 남북 북에서 양성한 두 스파이를 추적해, 분단이 지속되는 한 실존적 문제일 수밖에 없는 남북 간첩전쟁의 진정한 속살을 보

여준다. 남파간첩 김동식(63)과 대북공작관 정구왕(66)은 각각 남한의 체제 전복을 꾀하고, 북한의 붕괴를 도모하며 하루하루 생사의 줄타기를 뒀다. 이들의 파란만장한 발자취와 절절한 육성을 담은 건 이 책이 지닌 큰 미덕이다. 각각 37년, 17년간 일간지 기자로 일하며 대형 사건을 취재해 온 저자들은 간첩 잡는 수사관 등 50여 명을 만나 간첩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발굴한 뒤 두 스파이의 인생 역정을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김동식은 28세에 북한에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던 인물이다. 1990년대 서울에 잠입해 지하당을 구축하고 여성 거물 고경간첩 이선실을 북한으로 북귀시킨 공적을 인정받았다. 김일성은 “지난 40~50년보다 더 큰일을 했

다”고 치하했다고 한다.

그러나 35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한국에서 간첩 잡는 일을 돕는 전문가로 일한다. 두 번째 남파 때인 1995년 이인영·함운경·우상호 등 유명 운동권 인사와 고은 시인을 포섭하려다 실패한 후, 총격전 끝에 붙잡혀 대한민국에 정착했다.

정구왕은 정보사령부 중령 출신이다. 1998년 중국 단둥에서 블랙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중 북한에 납치돼 평양에 220일간 감금됐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이중스파이를 자처하며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그의 이름 이니셜을 따 ‘CKW 사건’으로 알려진 그의 탈출기는 정보 세계의 치부가 담겨 이제껏 금기로 통했으나 이 책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 책의 백미는 스파이라는 가면 뒤에 있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김동

식이 전하는 ‘맨땅에 헤딩’식 포섭 방식은 의외의 허술함과 동시에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유효할 첩보전의 본질을 보여줘 흥미롭다. 정구왕이 귀환 이후 한국에서 받은 대우는 가혹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블랙 요원으로 남지 못한 미안함을 동료 공작관들에게 전한다.

할머니 간첩 스토리, 북한이 남파간첩들에게 여성을 대할 때 소련의 전설적인 스파이 리하르트 조르게처럼 하라고 교육하는 이유도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이들의 증언은 우리가 모르던 오늘을 돌아보게 한다. 최근 정국으로 간첩에 관심이 많아진 이들에게, “요즘 간첩이 어딤?”고 말하던 이들 모두에게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는 재미를 선사할 책이다.

백일헌 기자



남북 스파이 전쟁
고대훈·김민상 지음
중앙북스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혐오로 물든 '소년의 시간' ... 어른은 아무것도 몰랐다

열세살 아들이 긴급 체포됐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의 시간'(원제 'Adolescence') 이야기다. 지난 13일 첫 공개된 이 영국 드라마는 공개 후 10일 넘게 전세계 넷플릭스 TV 쇼 1위(25일 플릭스패드를 기준)를 이어가고 있다. IMDb(인터넷무비데이터베이스)에서 10점 만점에 8.4점을 받았고,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99%를 기록했다. 외신들도 "고요하게 충격적인 드라마"(데일리 텔레그래프),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를 향한 깊이 있는 비판"(뉴욕타임스)이라며 주목했다.

13살 소년 제이미 밀러(오언 쿠퍼)가 동급생 살인 혐의로 체포되며 시작하는 이야기. 동시에 10대의 심리를 추적하기 위한 어른들의 분투극이기도 하다. 사건 수사를 다룬 초판 1, 2부는 범죄 스릴러의 느낌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3, 4부는 섬세한 심리극의 향이 짙다. 무엇보다 '비자발적 독신주의자'(Involuntary Celibate)의 졸업말자 연애를 못하는 이유를 여성들에게서 찾는 남성을 의미하는 '인셀'을 핵심 요소로 등장시켜 전 세계의 공감을 샀다. 영국은 이미 인셀 문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는 상황.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셀을 기존의 '극단주의 우려범주'로 둔 데서 나아가 극단적 여성혐오를 테러로 규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젠더갈등·세대갈등 전면예=극 중 제이미는 '괴물'이거나 '악마'가 아니다. 인셀 문화에 젖어든 학생들 또한 특별하지 않다. 드라마 속 평범한 청소년들은 80%의 여성이 상위 20%의 남성만을 만난다는 '20:80법칙', 영화 '매트릭



'소년의 시간' 1부 속 장면. 아빠 에디스티븐 그레이엄(왼쪽)은 아들 제이미(오언 쿠퍼)의 동급생 살해 혐의로 인해 경찰에 불려간다. 시종일관 "내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제이미 앞에 에디는 고심한다. [사진 넷플릭스]

스'를 인용해 여성은 남성중심적 세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의 '빨간약 이론' 등을 상징하는 이모지를 주고받으며 성별에 따른 혐오를 내재화한다. 혐오는 SNS를 통해 전파되고, 사이버 불링은 물론 여성의 사적 사진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등 현실 세계의 문제로 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드라마 속 어른들은 이들의 정서를 전혀 읽지 못한다. 담당 형사 루크 배스컴 경위(애슐리 월터스)에게 "아빠는 애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아들의 답이 이 작품을 관통하는 문제 의식이다. 온라인 세계의 문법을 모르는 '기성세대' 경위는 '매너스피어'(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행동을 촉구할 때 쓰는 이모지와 동조한다는 의미의 하트들이 왜 등장했고, 이런 대화가 제이미의 심기를 어떻게 건드렸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결쇠는 소통에 있다=왜곡된 남성

넷플릭스 TV쇼 1위 '소년의 시간' 13세 소년, 여학생 무참히 살해 기성세대는 모르는 청소년 세상 왜곡된 남성관에 여성혐오 퍼져 한 회의 모든 장면, 한번에 촬영



'소년의 시간'은 회차마다 딱 한 번씩 촬영하는 '원테이크'를 활용했다. 일반-드론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썼다. [사진 넷플릭스]

관, 여성혐오, 서열화된 교실은 영국 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작품은 시종일관 '왜'를 설명하지 않는다. 심리학자를 만난 제이미가 또래 문화 내의 압박감, 여성을 향한 공격성 등을 토해내듯 표출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의 단면을 보여줄 뿐이다. 이를 따라가다 보면 제이미의 행동엔 부모, 학교, 친구 모두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드라마가 전하는 건 인셀 문화가 촉발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공동 작가 잭 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더 악화되기 전에, 우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원테이크 기법'= 이 작품은 '원테이크 기법'으로 화제가

됐다. 회차당 카메라 녹화 버튼을 한번만 눌렀다는 것. 치밀하게 짠 동선을 통해 한 회의 모든 장면을 한번에 빚어냈다.

촬영감독 매튜 루이스는 미국 영화 전문지 버라이어티에 "안무를 짜듯 리허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벼운 카메라로 일반 촬영과 드론 촬영모드를 오가며 촬영했다. 회당 촬영 시간은 리허설 등을 포함해 약 15일 정도 걸렸다.

이러한 기법은 시청자들을 3인칭 시점으로 이끈다. 시청자는 질문을 품은 채 마치 유령처럼 현장을 따라다니다가 대신 직접적으로 등장인물의 심리를 설명하는 장면은 생략됐다. 청소년의 심리, 인셀 문화에 대해 아는 만큼만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다큐멘터리처럼 현실적'이라는 젊은 세대의 의견과 '실제 이런 일이 있느냐'는 기성세대의 반응이 확연하게 갈리는 이유다. 최혜리 기자

프라이팬 대신 야구공 든 에드워드 리

잠실구장서 두산 유니폼 입고 시구 스타 셰프 에드워드 리가 잠실구장에서 프로야구 시구에 나섰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지난해 '흑백요리사: 요리계급 전쟁'에 출연해 준우승을 거두며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JTBC '냉장고

를 부탁해'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이날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서 시구를 했다. 에드워드 리는 2019년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주 최측과 협업해 요리 관련 이벤트를 연 적도 있다. 그는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을 기반

으로 활동하는데, 루이빌은 1884년 설립된 야구 배트의 명가, 루이빌 슬러거가 탄생한 곳이다. 그는 루이빌에 애정이 각별하다. '흑백요리사'에서도 루이빌의 또다른 상징인 후라이드 치킨을 테마로 한 두부 요리를 선보였을 정도다. 당시 그는 "셰프라면 지역의 정체성을 요리에 녹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두산 베어스 측의 요청으로) 시구를 맡게 돼 영광"이라며 "야구가 한국 대중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팀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셰프 에드워드 리가 프로야구 시구에 나서 호투를 선보이고 있다.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I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어른 문방구 매출 10배로... '텍스트 힙'은 힘이 세다

“너무 귀엽다” 문구페어100m 줄 MZ세대, 멋져 보이려 책 읽다가 책갈피 꾸미기 등 독서문화 진화 출판사 멤버십까지 100% 늘기도

“책 내용에 딱 맞는 책갈피를 끼워두면 기분 좋잖아요!”

지난 5일, 코엑스 더 플라자홀에서 열린 문구페어 ‘인벤테리오’의 독립서점 유어마인드 부스에 방문한 함모(27)씨는 각종 빵이 그려져있는 책갈피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 수원에서와 1시간 정도 부스를 둘러봤다는 함씨는 “사람이 많아 지치지만 귀여운 문구들을 사서 좋다”며 들떠있었다.

‘인벤테리오’는 문구 브랜드 포인트오브뷰와 온·오프라인 기반 편집숍 29CM가 함께 기획한 문구페어로, 2일부터 6일까지 5일 간 진행됐다. 한국에서 민간 기업이 개최한 오프라인 문구페어는 이번이 처음이며, 총 69개 브랜드가 참여했다. 포인트오브뷰는 문구 디자인 회사인 동시에 2022년 서울 성수동 연무장길에 문을 연 문구 편집샵의 이름, ‘어른들의 문방구’로도 불리는 이 매장은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10배 이상의 거래액 상승을 기록하며 급성장 중이다.

최근 문구에 쏠리는 MZ세대의 관심을 반영한 듯 ‘인벤테리오’도 1달 전부

터 진행한 사전예매 단계에서 티켓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공개 첫날이던 2일엔 약 2000㎡(670평) 규모의 넓은 전시 공간이 관람객으로 꽉 들어찼고, 행사장 앞엔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100m 가까이 길게 늘어섰다.

문구 산업의 성장은 젊은 층 사이 불고 있는 ‘텍스트 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텍스트 힙’은 글을 뜻하는 ‘텍스트’와 멋지다는 뜻의 ‘힙’을 조합한 단어. 작년 10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신조어로 부상했다. 초기엔 멋져 보이기 위해 책을 읽는다는 뜻으로 사용됐지만, 최근엔 ‘다방면으로 확장된 독서문화’를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인벤테리오’에 나온 문구 중에는 책갈피, 북커버, 필사노트 등 독서 관련 상품이 많았다. 포인트오브뷰와 『아무튼, 문구』를 쓴 김규림 작가가 함께 만든 ‘책연필’은 책에 그어도 밑줄이 안 남는 투명색 색연필로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디자인 스튜디오 오이뮤가 인기 드라마 ‘폭작 속았수다’와 함께 만든 유채 책갈피는 부스를 열자마자 동났다. 신소현 오이뮤 대표는 “최근 1년 사이 책과 관련한 제품의 매출이 3~4배 늘었다”며 “같은 문구 업계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커 등의 문구를 이용해 책을 취향에 맞게 꾸미거나(‘책꾸’) 관련 굿즈



1 지난 5일 코엑스에서 열린 문구페어 ‘인벤테리오’의 서점 유어마인드 부스에서 사람들이 책갈피를 고르고 있다. 2 지난 1일 용산 CGV에서 열린 팝업 ‘씨집책방’, 15일까지 진행된다.

최혜리 기자

를 사 모으는 것은 물론 저자와의 만남 등 책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다. 지난 1일 영화관 CGV에선 만우절 이벤트로 독립서점 콘셉트의 팝업 행사 ‘씨집책방’이 열렸다. CGV가 출판사 문학동네와 함께 큐레이팅한 책을 영화관 옆 대기공간에서 접처럼 비치해줬다. 같은 날엔 이벤트

의 일환으로 영화관 안에서 독서를 할 수 있게 만든 ‘독서관’도 열렸다. 신청자는 대부분 MZ세대였다.

2011년부터 진행된 민음사의 연간 멤버십 서비스 ‘민음북클럽’은 지난해, 전년 대비 회원수가 100% 이상 증가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편집자들이 선정한 글과 소장하고 싶은 굿즈를 모은 가

입선물 ‘잡동산이’가 성공 요인으로 꼽혔다. 민음사 마케팅부 조아란 부장은 “이미지나 극단적으로 짧은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에 글의 힘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며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이 책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혜리 기자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니었다... 자기자신 찾아가는 브리짓 존스

‘브리짓 존스의 일기...’ 16일 개봉 50대 젤위거 “세상도 우리도 성장”

브리짓 존스가 돌아왔다. 전작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2016)가 공개된 후 9년 만이다.

16일 국내 개봉을 앞둔 로맨틱 코미디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이하 뉴 챕터)는 ‘브리짓 존스의 일기’(2001) 시리즈의 네번째 작품이다. 시리즈는 작가 헬렌 필딩이 1996년



남편을 사고로 잃고 4년이 지난 뒤, 브리짓 존스(왼쪽)는 데이트 앱을 통해서 만난 연하남 루스터와 사랑에 빠진다. (사진 유니버설픽처스)

발표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원작과 영화 모두 여성의 일과 삶, 로맨스를 인간적으로 다뤘다는 호평을 받았다. 첫 작품에서 엉뚱하고 솔직한 매력을 가진 30대의 브리짓 존스(르네 젤위거)는 이제 50대가 됐다. 전작에서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낳은 그가 마크 다아시(폴린 퍼스)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뉴 챕터’에서 신혼생활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대신 불의의 사고로 남편 마크를 잃

은 브리짓이 등장한다. 그는 마크를 꼭 닮은 아들, 브리짓을 닮은 딸과 함께 4년째 싱글맘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다. 그러다 주변의 권유로 데이트 앱을 설치하게 되고, 매력적인 연하남 루스터(레오 우담)와 연애를 시작한다. 비슷한 시기, 방송국에 복직한 그는 일과 사랑, 육아를 모두 병행하며 ‘뉴 챕터’를 열어나간다.

영화는 이전 시리즈에서 선보였던 ‘연인 찾기’가 주된 플롯으로 등장해

흥미를 더한다. 그러나 ‘뉴 챕터’에선 상실이라는 새로운 감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영화는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브리짓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르네 젤위거는 배급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20여년의 여정 동안 세상이 많이 변했고 우리 모두 성장했다”며 “브리짓에게도 그 변화가 반영되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125분, 15세 이상 관람가.

최혜리 기자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담당 전문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체, 사업체 설립 비영리 단체 설립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직원 복지 / SEP, 401K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	--	--

정승욱 연방세무사 | 김영선 연방세무사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1.2 M Comer Lot Many Upgraded	웃브리지 타운홈 \$495,000 방3, 화3.5 Lake Ridge 커뮤니티
--	--

COMING SOON 리스팅
 굿 로케이션 집 수리중입니다.

- * Annandale 싱글 홈 \$890,000
- * Springfield 싱글 홈 \$800,000
- * South Riding 싱글 홈 \$1,2M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이예원 '7.8m 퍼트' ... 3년 전 아픔 갚았다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우승

18번 홀 '환상 이글' ... 통산 7승 기록
맞대결서 패배 안긴 홍정민 뿌리쳐
윤이나 잇는 KPGA 1인자 떠올라

이예원(22)이 극적인 이글 퍼트로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국내 개막전에서 우승하며 통산 7승 고지에 올랐다.

이예원은 6일 부산 동래 베네스트 골프클럽(파 72·6579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 최종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3개, 보기 3개로 2언더파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2언더파를 적어낸 이예원은 우승 경쟁을 펼친 홍정민(23)을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6월 SH 수협은행 MBN 여자 오픈 이후 10개월 만에 우승을 추가한 이예원은 시즌 첫 승과 함께 통산 7승을 기록했다. 우승 상금은 2억1600만원.

홍정민을 꺾은 건 이예원에게 각별한 의미다. 두 선수는 3년 전인 지난 2022년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결승에서 격돌했다. 당시에는 이예원이 1홀의 근소한 차이로 지면서 홍정민에게 프로 데뷔 첫 승을 안겼다. 이번에 1타라는 간발의 차이로 이기며 설욕한 셈이다. 두 선수는 17번 홀까지



지난 겨울 매일 미숫가루를 마시며 체중을 3kg 늘린 이예원이 KLPGA 투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다. 오른쪽은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는 이예원. [사진 KPGA]



나란히 10언더파로 팽팽히 맞섰고, 승부는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갈렸다. 이예원은 투혼에 성공했다. 반면 홍정민의 세컨드 샷은 그린을 지나쳐 갤러리에 맞고 멈췄다. 홍정민이 먼저 16m 어프로치샷을 컵 코앞에 붙인 뒤 버디로 마무리해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이예원은 부담스러울 수 있던 7.8m짜리 이글 퍼트를 성공시켜 우승을 결정지었다.

이번 대회는 지난 시즌 KLPGA 투어를 평정한

윤이나(22)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로 진출한 뒤 새로운 일인자를 찾는 무대로 관심을 모았다. 춘추전국시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지난해 다승 공동선두(3승) 이예원이 첫 승으로 먼저 주목받았다.

이예원은 "시즌 초반에 최대한 빨리 첫 승을 거두는 게 목표였는데, 국내 개막전에서 곧장 우승해 더욱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지난해 체력적으로 부족함을 느껴 새 시즌을 준비하며 체중을 3kg

가량 늘리고 러닝도 꾸준히 했다. 올 시즌엔 4승을 거둬 단독 다승왕에 오르는 게 목표"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종라운드에서 마지막 4개 홀 연속 버디로 3타를 줄인 안송이가 3위(최종합계 9언더파)에 올랐다. 1년 만에 국내 무대에 나선 신지에는 최종합계 이븐파, 공동 24위(이븐파)로 대회를 마쳤다. 지난해 우승자 황유민은 공동 33위(최종합계 2오버파)에 그쳤다. 송지훈·고봉준 기자

이정후 '3안타' 폭발

시애틀전서 2루타 2개 등 몰아쳐
시즌 첫 기록... 타율도 3할대 진입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27)가 시즌 처음으로 한 경기 3안타를 쳤다. 타율도 3할대로 올랐다.

이정후는 6일(한국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2루타 2개 등 4타수 3안타·2득점·1도루로 활약했다. 3안타 경기는 올 시즌 처음이자 지난해 5월 7일 콜로라도로키스전(5타수 3안타)에 이어 두 번째다. 이정후는 최근 6경기 연속 안타 및 7경기 연속 출루를 기록했다. 타율 0.321(28타수 9안타), OPS(출루율+장타율) 0.887. 시즌 2루타(5개)와 도루(3개)는 지난 시즌(2루타 4개, 2도루)을 넘어섰다.

1회 말 첫 타석에서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난 이정후는 0-0으로 맞선 4회 말 두 번째 타석에 시동을 걸었다. 상대 선발 브라이스 밀러의 2구째 슬라이더(시속 135km)를 잡아당겨 우익선상 2루타를 날렸다. 3루 도루에 성공한 뒤 맷 채프먼의 적시타로 선취 득점했다. 팀이 2-1로 앞선 6회 말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안타 3안타를 몰아치며 경기 최고 선수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도 선두타자로 나와 또 2루타를 터트렸다. 밀러의 5구째 너클 커브(시속 132km)를 통타해 우중간을 갈랐고, 이 타구는 워닝 트랙에 떨어진 뒤 튀어 올라 펜스를 넘어갔다. 인정 2루타. 채프먼의 적시타로 추가 득점했다. 7회 2사 후에는 좌전 안타를 기록했다.

MLB닷컴은 이정후는 경기 최고 선수(Player of the game)로 선정했다. 4-1로 이긴 샌프란시스코는 7승1패로 LA 다저스(9승1패)에 이어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 2위에 올랐다.

배영은 기자

HL 안양 '3연패' 위업

아이스하키 아시아리그 파이널
일본팀 꺾고 대회 최다 9회 우승도

골리 맷 달튼(39)이 '빙판 위 총무공'이라는 별명처럼 일본을 꺾고 떠났다.

아이스하키 HL 안양은 지난 5일 안양빙상장에서 열린 2024~25 아시아리그 파이널(5전3승제) 4차전에서 레드이글스 홋카이도(일본)를 연장 끝에 2-1로 꺾고 3승1패로 우승했다. 1-1로 맞선 연장 파이어드 10분29초에 안진휘의 장거리 리스트샷이 골 크리스로 쇄도하던 강민완에 맞고 골든골로 연결됐다. HL 안양은 해외로 떠난 이종민·신상훈의 공백이 커 보였지만 남은 선수들이 조금씩 더 뛰며 그 틈을 메웠다. 이번 우승으로 HL 안양은 세 시즌 연속 통합우승을 달성했다. 아시아리그 사상 처음이다. 1994년 창단해 30주년을 맞은 HL 안양은 이로써 최다인 9회 우승(2010-11-16-17-18-20-23-24-25)도 함께 기록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예고한 달튼이 31세이브를 올리며 파이널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2014년 HL 안양에 입단한 캐나다 출신 달튼은 2016년 특별귀화하면서 지은 한국 이름 '한라



아시아리그를 제패한 HL 안양 선수들이 백지선 감독을 행가래치고 있다. [사진 HL 안양]

성(漢拏城)'처럼 든든히 골문을 지켰다. 세계선수권대회 당시 골리 마스크에 이순신 장군 모습을 새기고 골문을 지켜 '빙판 위 총무공'으로 불린다. 1980년대 일본에 0-25로 참패했던 한국 아이스하키는 달튼을 골문을 맡은 이후 일본에 지지 않을 정도로 강해졌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 달튼은 슬라이딩하며 눈물을 쏟았다. 동료들이 달튼에 달려와 안겼다. 달튼은 "내 하키 인생에 위대한 기억을 만들어준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이든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린 기자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정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닌슐라 상담환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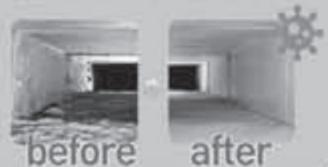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4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찬들리 VA

- 연매상 100만+25만
- 급하게 처리원함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4월 7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싸실 주말 가능한분, 유무경력자
443-386-0515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풀/파트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엘리콧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메릴랜드 주 로코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콧시티
240-426-5678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메릴랜드 JESSUP- 화장품출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자 구함
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 분 연락바랍니다.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식당
목요일과 토요일 또는 하루 일하실 서배구 합니다.
식당 Open hour 11:00 AM - 8:00 PM -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240-678-5395

▶▶엘리콧시티 장수 설령장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캐쉬어/경력자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이미용/기타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게이더스버그 MD에서 남/여 머리하시분 구합니다.
301-926-3638 / 301-538-4246(Soo)

싱글/타운방 렌트

메릴랜드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5분거리 반지하방 (출입구별도), 주방, 욕실,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욕실/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여성분
240-413-2738

메릴랜드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근처 싱글층 욕실달린 이층 큰방, 반지하방 (출입구별도) 주방, 욕실, 인터넷, 가구완비
301-538-1438

볼티모어 오양스밀스 좋은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하나 렌트 유모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모
443-631-7866

우드스탁 반 지하 단독, 화장실, 침대, 출입문 별도, 금연, MD
443-983-1880

▶▶엘리콧시티 타운홈 렌트 메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양로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가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언트연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메릴랜드 엘리콧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퍼센터 리모델링/ 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arket Research Analyst: Research market conditions in local, regional, or national areas to determine potential sales. Gather information on competitors, prices, sales, and methods of marketing and distribution. Create digital marketing campaigns based on regional preferences and buying habits.
40 hours / week. Master in Business Administration or related field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and Job Location:
Nowy Brands, LLC at 7921 Jones Branch DR., Ste LL2, McLean, VA 22102

Marketing Specialist: Research market conditions in local or regional areas to determine potential sales. Gather information on competitors, prices, sales, and methods of marketing and distribution. Operate marketing campaigns based on regional preferences and buying habits. 40hours / week. Bachelor in data Analysis or related field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 Job Place: Sampanee, Inc. at 2122 P Street NW, Washington DC 20037.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케어피플 홈헬스 (애난데일오피스) Billing Coordinator (한국어, 영어 가능하신분)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2024년에 본인 또는 가족 소득이 \$67,000 미만인 경우 세금 보고 무료 서비스 안내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 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력자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력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금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a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식품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하실 허버지 웨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 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식집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이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더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T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플타임 M-F(7am-4pm)유경험자
703-489-5105

컨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불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703-774-7443

에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파타
임, 케쉬페이 가능
571-352-4938
Chimc.va@gmail.com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
하실 서버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세프/부주
방장을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티어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향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소 원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물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아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레스/룩하실분 구합니다.
301-938-4075 문자요망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는
571-215-6767

에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일
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세탁소 픽업스토어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 옆
240-644-4190

▶▶로튼 세탁소 파트/풀타임 카운터 보실
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3-599-5331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분/
파/풀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파타임 또는 풀타임/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소들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 메케닉 유경험자
구함
571-332-6110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에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
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청소/기타구인

버크 태권도 사범님 구합니다. 플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맥클린 한국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간단한 영어 가능하신분
571-235-8997, 703-505-5760

내니 급구 알렉산드리아/스프링필드에서
8개월 여아 풀타임 내니 구합니다
M-F(9-5pm)
856-304-1907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 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
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훔말아서 해주실분
703-473-6022.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 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 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엘리컷시티 픽업
풀 or 파트타임 유경험자 환영 9-6pm
410-926-3200

싱글/타운하우스렌트

맥클린 하이 싱글 렌트 \$5,900
방5, 화3, 카포치2, 펜스, 전부 모던형으로
리모델링, 메트로 근처, 6/1 입주
571-239-6054

첼트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 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
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에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합니다.
(알링턴 2마일, DC 7 마일). 3층, 7 베드룸과
7 베스 전체 7500+ sf 의 아름다운 집!
크레딧 없는 분도 가능! 월 \$7,495.
703-244-3453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홀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홀 렌트 \$3,500
▶703-231-5572

콘도 렌트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스프링필드 1층 콘도 1베드 1 풀베스
월 1,600불
703-489-6926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센터빌 롯데근처 콘도 방2, 욕실 1.5, 깨끗하고
위치가 좋음 \$2200 2월부터 입주 가능
301-466-1646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콘도 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
분거리. 방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에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 (물값과 가스비 포함되어 있음).
H-Mart 가까운 교통편리.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에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 없
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1. 에난데일 콘도 렌트 \$1,800 방1, 화1
세탁기, 전부 리모델링, 마루,
환한 3층 1,000sqft

2. 옥톤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3.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 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렌트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근처 2분 거리
방1개, 직장인 남성 환영
571-530-7322

에난데일 K마트 근처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
트, 주차 낙낙
703-965-2343

스프링필드 방+거실, 워크아웃, 가구/인터
넷완비, 즉시 입주 가능, 여자분 환영
703-609-4547

페어팩스 코스코 옆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화장실/거실/가구완비
703-362-5425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홀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포
443-631-7866

노바, 조지메이슨 대학에서 10분거리, 버크
싱글홀 지하 방 하나 렌트, 가구완비, 금연,
여성분 환영
703-939-2737

센터빌 롯데근처타운 하우스
욕실 딸린 방 하나
571-970-8048

센터빌 CVS근처 깨끗한 싱글홀 2층 방 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스프링필드 타운홀 2층 작은 방 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센터빌 롯데에서 가까운 타운홀 잠만 주무실
여자분, 유포 \$750
703-581-2631

에난데일 예촌 옆 타운홀 방 렌트, 직장인, 학
생 환영, 취사가 가능
703-622-2033

센터빌 CVS근처, 타운홀 이층 작은 방 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에난데일 H마트 근처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센터빌 스톤로드 방 렌트 \$650 유튜 포함
703-474-9713

첼트리 롯데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새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여자분 \$600
703-678-7833

센터빌 유포, 세탁기, 취사가 가능. 아침부터 저
녁 8까지 비어있음. 넓고 햇빛 잘 들고, 깨끗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지?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4월 7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5

항. 작은방, 큰방 입주가능. 여자분만.
571-664-9905

아난데일 예촌근처반 지하방1/화실/샤워/
유포, 파킹즉시입주가능
703-629-6275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콘도
방1, 욕실1, 주차1 남자분만
571-224-8585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사무실 콘도 렌트 800 sq
571-237-3411

센터빌 던킨쉬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
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첸틀리 End Unit 벽돌 타운 하우스
\$779,000 방3, 화장실 3.5,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자이언트 몰양
▶571-239-6054

콘도 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세탁기,건조기,발코니,
스토리지
703-336-3283

1.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 2, 페리오, 스크린 덕,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 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
린 앤드 유닛, 시원한 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
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3. Open House 4/13(SUN) 2-4pm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3, 화2.5, 차
고1, 1,778sqft, RT29/66, Giant, Harris
Teeter, Gateway Shopping mall
▶571-239-6054

애난데일 콘도 \$210,000
완전 리모델링된 환하고 밝은 예쁜 콘도, 나
무마루, 새롭게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H
Mart 가 가까움
703-813-8949

1.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0,000
2010년, 방3, 화3.5, 차고2, 2,300sqft
Fairoaks mall, route 50/66/286
2. 센터빌 Fair Crest Town \$695,000
방3, 화3.5, 차고1, 앤드유닛, 덕, 팬스, 파월
초, 센터빌하이
3. 페어팩스 콘도 \$580,000
방2, 화2, 차고2, 엘리베이터, 계단없는 단층
콘도, 1,078sqft, 콘도비 \$534.77/m,
66/286/FairOaks mall, Fair lakes mall
4. 센터빌 중심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앞, 1230sqft,
콘도비 \$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1. 페어팩스 싱글 \$1,150,000
방4, 화장실 4+1, 차고2, 페어팩스 코스코 근
처에 있는 멋진 싱글홈
2. 페어팩스 싱글 \$850,000
방4, 화장실 2+1, 차고2 밝고 이쁜 집, 마루바
닥, 넓은 뒷뜰
3. 페어팩스 싱글 \$1,300,000
방4, 화장실 4+1, 차고2 벽돌로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
4. 페어팩스 싱글 \$1,900,000
방4, 화장실 3+1, 차고2, 맨투아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새집
5. 옥튼 새 싱글 \$2,300,000
방5, 화장실 4+1, 차고2
1.8에이커의 넓은 땅에 지어진 새 집, 옥튼 HS
6. 맥클린 싱글 \$2,200,000
박4, 화장실 4, 차고 2, 모던한 스타일로 지어
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리 HS
703-899-8999

1. 센터빌 타운하우스 \$600,000
방4, 화장실 3.5, 렌트수익 \$2,900

2. 레스톤 타운하우스 \$620,000
방3, 화장실 2.5, 렌트수익 \$3,000
3.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0,000
방3, 화장실 3.5, 호수뷰, 차고 2, 렌트 \$3,600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렌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음.
2. 매나사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
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미장원리스
게인스빌 상업중심 미장원 렌트 \$3,300/m
1,300 sqft, 29/66, 세븐일레븐 옆
571-239-6054

미장원매매
센터빌 중심 상업중심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식당급매 (한식+일식)
센터빌, 캔들리 VA
연매상 100만+25만,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급매 (매매가격: \$59,000)
혼자 할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6,500
업종: 캔디 배달(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 엔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 상업중심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비어 Only)
571-242-3736

중고매매/기타

혼다 CRV SUV 2013년 18만 마일,
한주인/상태양호 \$6,000
213-767-2381

무쇠가마솥 식당용 중고 큰 사이즈
필요하신분
703-401-9997

식당용 테이블 11개, 의자 40개 중고
상태 좋음
703-401-9997 (문자요망)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703-626-7370 YJ CHOI

혼다 오딧세이 미니밴 2007
26만 마일 뉴타이어 상태 \$3,000
571-814-8773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종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통역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티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
원, 카운터, DMV, 차없으신분라이드 가능

703-939-2737
▶▶ 수학 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줌 강
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
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
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우표수집 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
고, 소중한 우표들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Frier furnace 4ea, Oil c/L machine 1ea
Mix machine 1ea, 반찬 Refrigerator 2ea
Cash register 1ea
Beltville, MD 20705
443-904-7146

건축/페인트/마루

손싸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크루 구합니다.
(타주)
540-680-1571 / 703-955-2827

▶▶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
실 기술자, 헬퍼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
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Out), 덕 메
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
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
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
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
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덕,
그외모든공사, 추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력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
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 냉장, 워킹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
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여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드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 클리닝

도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전문, 비
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선책, 확실한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
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는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창고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역류장
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
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보형처리가능/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 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여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뜰만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웁사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 420-5492 / (703) 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교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달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지요?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 핸드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콘크리트 보수 / 유리

콘크리트 보수

내려 앉은 콘크리트 올려 드립니다. 새로 만드는것보다 저렴합니다. 안 고치시면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 계단
- 워크웨이
- 페디오

202-774-6554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저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드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 백금(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반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새는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씽폼프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핑수리/거러교체 ◆사이드 리페어/창문 ◆데크 수리 ◆드라이얼/페인트 ◆파워워시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형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아라냉동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캐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SK 플러밍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 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독자가 행복 해진다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Kathie: Sally I'm so sorry but I can't come to your party tonight.

캐시: 샬리 어젯밤 네 파티에 못 가서 너무 미안해.

Sally: I know. What happened?

샬리: 그래. 무슨 일 있었어?

Kathie: Something came up.

캐시: 갑자기 일이 생겼잖아.

Sally: What happened? 샬리: 무슨 일인데?

Kathie: My daughter got sick. She came down with

a bad cold.

캐시: 딸이 아팠어.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Sally: Oh I'm sorry to hear that.

샬리: 아 저런. 힘들었겠다.

Kathie: I'm sure she'll be up and about in a couple of days.

캐시: 이틀 정도면 다나올 거야.

Sally: Make sure she drinks a lot of liquids.

샬리: 꼭 물을 많이 마시게 해.

Kathie: She's doing that.

캐시: 그리고 있어.

Sally: Good. Well I'm sorry you'll miss the party tonight. 샬리: 잘 했네. 오늘밤 파티에도 못 오게 돼서 섭섭하다.

기억할만한 표현

▶ come down with: 감기나 독감에 걸리다.

"I think I'm coming down with a cold."

(감기 걸린 것 같아.)

▶ (one) is up and about: (병이나 부상에서) 낫다.
"He's sick in bed but he'll be up and about in a few days."

(그는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며칠 있으면 나을 거야.)

▶ make sure: 꼭 ~하다.

"Make sure you turn off the lights before you go out." (외출하기 전에 전등 꼭 꺼라.)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가로열쇠

(1) 물고기의 잔뼈 (5) 손에 들고 부치조 (6)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 (7) 먹고 난 뒤의 그릇을 씻어 정리하는 일 (8) 남에게 돈이나 물건, 먹을 것 따위를 거저 달라고 빌 (9)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를 흐르는 물 (11) 대열의 앞에 서서 기를 드는 사람. 도쿄 올림픽에서 선수단 입장 때 한국의 ~는 김연경과 황선우 선수였죠 (13) 오토가 시작되는 부위를 윤상으로 둘러싸는 밤톨만 한 크기의 남성 생식기의 일부 (15)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안전의 가부를 결정하는 일 (16) 의사가 병원 밖의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진료함. ~가 방에 청진기를 챙겨 넣었다 (17) 곰의 말린 쓸개 (18) 보온을 하거나 열을 차단할 목적으로 쓰는 재료 (21) 사람의 몸에서 허리 위의 부분 (24) 나 오던 피를 멈춤 (25) 말이나 소가 가려운 곳을 긁는 것 (27) 가축에게 풀을 먹이며 돌보는 아이 (28) 적도를 경계로 지구를 둘로 나누었을 때의 남쪽 부분 (29) 젓먹이 아이가 두 입술을 펴며 투투루 소리를 내는 것 (30) 코끼리의 엄니 (31) 눈이나 입의 언저리. 눈~을 붉히다.

세로열쇠

(2) 승려가 집집을 다니며 문 앞에서 염불하고 곡식이나 돈을 청하는 일. 절의 중수라든가 범종의 주조 등 절에 특별히 경비를 쓸 일이 있을 때 했죠 (3) 빈 산에 가득 참. 명월이 ~하니 쉬어 간들 어떠리 (4) 남과 시비하거나 남에게서 훔치는 말을 듣게 될 운수 (5) 헤어질 수가 없을 만큼 많음 (8) 말로 전하여 내려옴. ~ 동화 (10) 끼니 때가 아닌 때에 음식을 조금 먹음 (12) 예전에, 자기의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자필로 글자를 직접 쓰던 일 (14) 죽은 사람을 더 좋은 세계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부처 앞에 공양하는 재 (15)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차와 과자 따위를 차린 상 (18)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아리 (19) 열정에 불타는 의기를 가진 사나이 (20) 작은 규모로 물건을 파는 집. 생선 ~ (22)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봄 (23) 재주와 슬기가 남달리 특출한 아이. 탁구 ~ 신유빈은 2019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당시 만 14세의 나이로 태극마크를 달아 역대 최연소 국가대표 신기록을 썼다 (25) 출가해서 불문에 든 여자 승려 (26) 미워하고 깽아내리려 하는 마음.

스도쿠

2	8	7	4	3	5
9		2	5	7	1
7			8	6	9
7	4	6		3	5
2			3		
5	6	1			4
	2	9	6	1	7
		8		5	4
5	3	1	4		8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2	6	4	9	1	7	3	5
3	4	5	2	8	1	6	9	7
7	1	9	5	6	3	2	8	4
4	6	8	2	7	9	5	3	1
9	7	1	3	4	5	6	2	8
2	5	3	6	8	9	4	1	7
6	9	2	8	3	4	5	7	1
1	8	7	9	5	2	3	4	6
5	3	1	4		6	8	9	2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양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양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양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양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양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input type="text"/> EXP. DATE: / / month year CVS: <input type="text"/>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애틀랜타 기타 지역

일본식당 구인
*히바찌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걸어서 출퇴근 거리)
알라버마 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테리야키 매매 (\$75만)
워싱턴주, 월렌트 \$3,715
인기지역에서 10년이상 운영된
안정적인 To Go 전문
년매출: \$1.2M, 년순익 25만
John Lee (469)900-7073

40년된 덴탈랩매매
살기좋은 세크라멘토지역
품격있는 고객들과 성장할
아주 좋은 기회 (*가격문의)
꼭 관심있는분 이메일주세요
Hcho07@sbcglobal.net

이민생활의나침판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Hello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급리티 리얼타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매체
All about US Life!

구인
RENT
부동산
렌트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어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 레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
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뱀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비즈니스 홍보 걱정 끝~

중앙일보 '안내광고'가 있잖아요.

Korea Daily Tel. 213.368.2525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취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새봄맞이 2025년산 NEW제품 출시기념

신정식 박사의 30년 약초연구 비방이 담겨있는 매일 먹는 위장영양제 **속편해**

한달분 정가 \$120 **2+1할인**

2개사면까지 **(2+1)** 위장의 체질을 개선해 위장을 힘있게 강하게!

신정식박사

속편해한의원 213-393-0999 / 213-334-1100

속편해 구입처 711 S. Vermont Ave # 205, LA CA 90005
별본 갤러리 (213)388-4100 / LA 갤러리 (323)733-7200 / 한국약국 (323)464-3925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4월 **HOT** 리스팅

2025 주택 동향 (부동산 시장 불안정) 금리인하의 불확실성, 주택 매물 부족, 부동산 가격 하락은 여전히 부정적.

주택 구입 전략!

1. 주택 대출 금액을 알아본다.
(세금보고서 2년치)
2. 주택 모기지 납입능력 금액을 책정한다.
3. 구입금액설정후 구입지역을 설정한다.

* 여러각도에서 같이 고민해 드리는
비키리 부동산에 연락주세요!

셀러 집 판매 전략!

- ★ 아직도 매매 물량이 부족한 시기라
집 팔기 좋은 시점입니다.
- ★ 셀러를 대변하는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에 연락주세요.

매매

디씨 NW 건물 \$2.2M 그로서리 스토어 1층, 2, 3층 아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60만불 방4+ 화장실3.5, 렌트 수익 \$2,900
 레스톤 타운하우스 \$62만불 방3 + 화장실2.5, 렌트 수익 \$3,000
 스탠포드 타운하우스 \$42만불 방3 + 화장실3.5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만불 방3 + 화장실3.5, 호수뷰, 차고 2, 렌트 \$3,600

렌트

애쉬번 웨어하우스 \$4,800 3800sqft, 큰 오픈 스페이스, 화장실 2개, Loading dock
 애쉬번 타운하우스 \$3,600 방3 + 화장실3,차고 2, 입주 6월
 찬틸리 타운하우스 \$3,400 방3 + 화3,5,차고 2, 입주 4월초
 우드브리지 \$3,200 방3 + 화장실3.5, 차고 2, 입주 3월초
 맥클린 로톤다 콘도 방2 + 화장실 2, 즉시 입주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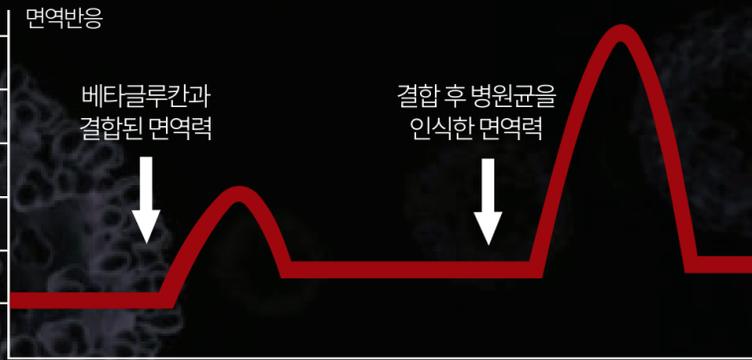




강력한 면역 활성화 물질-

베타글루칸

단기간에 면역력을 올려야 되는 분에게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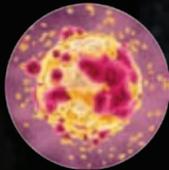
(출처: Journal of Food Additives Vol 16, 12/2021 pg 8-18)



암투병



항암 치료 후 재발 관리



만성염증



조강일
내과전문의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키워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우메켄 **NEW** 베타글루칸

- 영지버섯
- 상황버섯
- 차가버섯
- 꽃송이버섯
- 녹각영지버섯
- 동충하초
- 송이버섯
- 마이다케(양새)버섯
- 아가리쿠스버섯

9가지 항암버섯에서 추출한 우메켄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 함량을 **280mg**으로 올려 더 강력해졌습니다!
 더 강력한 면역력을 위해! 우메켄 베타글루칸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항암 치료 중인 분
-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 가족력이 있는 분
- 고열이 자주 발생하여 몸이 떨리고 질병 회복 기간이 긴 분
-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
- 백혈구 수치가 낮아 구내염, 설사, 감기, 독감에 자주 걸리는 분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래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